성도의 벗 1992년 5월호 통권 314호/1992년 5월 1일 발행/1990년 2월 24일 제3종 우편물(나)급인가/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서울 종로구 창문동 7번지 ㉾ 110-030

성도의 벗

5 1992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5 1992

표지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1991년 소련 여행을 하면서 레닌그라드(현재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원들과 만나고 있다. 넬슨 장로는 지난 5년간의 유럽 내륙 및 동유럽에서 발생한 놀라운 사건들을 기술했다. 8쪽의 "유럽 무대에 올려진 드라마"를 참조한다.
사진 : 크레이그 다이아몬드

***어린이란* 표지 :**
음울한 겨울이 봄으로 바뀌면서 세 소녀가 새로 피어난 꽃들에 둘러싸여 연중 이 맘때면 북반구에 찾아드는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계절의 변화는 만물에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상징한다. 6쪽 어린이 란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를 참조한다.
사진 : 마이클 맥콩키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 천국 가정, 영원한 가족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2

유럽 무대에 올려진 드라마 러셀 엠 넬슨 8

위싯 카나캄 데이비드 미첼 32

국제적인 가족 40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가다 로스티야 고든 스미스 46

오른쪽 차선으로 가시오 빅터 미겔 보타리 48

청소년란

안식일을 깨달은 일요일 클리티 클리거 25

질의 응답 :
선교 사업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28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캐롤린 세선즈 알렌 36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우리의 다양성과 우리의 자매애 24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더블류 유진 핸슨 회장 65

교회 및 지역 소식 66

어린이란

포리 웬디 토리즈 레예스 콜리스 클레이튼 50

심심풀이 53

함께 나누는 시간: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버지니아 펄스 54

거룩한 책임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56

감독님과의 두번째 큰 접견 로버트 맥도널드 58

로렌조 스노우 켈린 릭스 62

성찬식 예절 줄리 에이치 젠슨 64

1992년 5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루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앨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데이,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14권, 제29권, 제5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92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s;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2985 320
Printed in Korea 5/92

위안이 됨

독일어판 *델 슈테른*(한국의 *성도의 벗*에 해당) 1991년 2월호에 실린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의 "너희는 탐내지 말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약품이 아무 효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권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건강 문제로 인해 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으며 집세를 내거나 음식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고 싶었고 제 또래 친구들이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병세가 너무 심해서 길 건너에 있는 식료품점에조차 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는 여느 때보다 일찍 '*델 슈테른*'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을 찾고 좀더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드렸습니다. "너희는 탐내지 말라"는 기사는 저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매
독일

구세주의 사랑

이 훌륭한 잡지를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에 담긴 총관리 역원 및 기타 교회 회원들의 말씀과 권고는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들은 자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모든 분들이 이 잡지와 몰몬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이곳 지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언시오 루페이
페루

완전한 선물

저희는 리아호나(포르투칼어판),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연차 대회가 실린 호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이처럼 훌륭한 잡지를 성탄절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은 리아호나를 저희 지역에 사시는 한 명망있는 판사에게 드렸습니다. 그 분은 훌륭한 판사이자 가장으로서 고매한 인격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은 판사로서 어떤 명령과 판결을 내릴 때 영감을 받기 위해 매달 표준 경전과 더불어 리아호나를 숙독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곧 그분의 댁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그분과 복음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레모르 가족
크리씨우 마 지부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 스테이크

우리에게 손을 내미심

저는 1991년 2월에 침례를 받고, 이어서 1991년 1월호 독일어판 *델 슈테른*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하여 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능한한 조속히 성전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 대리 침례를 받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한 후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 침대 곁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침례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게 가져다 준 *델 슈테른*과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훌륭한 경험을 하도록 해주셔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는 *델 슈테른* 덕분에 이토록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리커 기센
글룩슈타트 와드
독일 노이문스터 스테이크

천국 가정, 영원한 가족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노래로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이며,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정을 대신하거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대관장단*, 1962년)는 것을 자주 상기하게 됩니다.

사실상 가정은 단순한 집, 이상의 것입니다. 집은 나무나 돌이나 벽돌로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은 사랑과 희생과 존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집은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으며, 가정은 가족을 보호해 줄 때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마찬가지로 가족은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연륜이 오랜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 피곤과 나태와 악화의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일성도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이 집에 다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 둘씩 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가족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만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현재의 가정을 좀더 천국과 같이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든지,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설계자이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릎꿇고 기도하십시오.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러한 일은 집을 가정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설계인 하나님의 청사진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와 … 주변을 정리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성 88 : 119).

우리가 현재 경건하게 성지라고 부르는 도시와 마을의 먼지나는 흙길을 예수님은 걸어다니시며 아름다운 갈리리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흔히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말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시켜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 : 25) 후에 그분은 다음의 말을 마음에 새겨 두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교성 132 : 8)

1832년 12월 27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성 88 : 119)

우리가 현명하고 올바르게 집을 지울 수 있게 해주는 이 청사진보다 더 좋은 청사진을 우리들 중에서 누가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집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서 "반석 위에"(마태복음 7 : 24~25 참조) 지은 집이 되어, 이 험한 세상에서 도처에 산재해 있는 폭우와 같이 퍼붓는 역경과, 홍수처럼 밀어 닥치는 반대의 물결과 의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는 집이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타당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린도전서 3 : 16)

우리가 이루는 가족, 진실로 우리가 이루는 가정의 설계자가 바로 주님이 되시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전체 공사에서 주요 부분을 책임지는 하청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 생활에서 얻는 교훈, 그리고 우리가 지어 나가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릎꿇고 기도함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 : 5~6) 이와 같이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현명한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미대륙에서 니파이의 동생인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두터운 신앙으로 구하라."(야곱서 3 : 1)

영감을 받은 이 권고의 말씀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수정같이 맑은 물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의 의사들의 사무실에는 정서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혼 법정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날로 쌓여 가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사부 직원들과 노사간의 불만 처리 위원회는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소한 불만을 취급하는 일을 맡은 어느 인사부 직원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책상 위에 하나의 익살스런 조그마한 쪽지를 써 붙여 놓음으로써 특별히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은 기도해 보셨습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사부 직원은 책상 위에 그러한 쪽지를 붙여 두고서도 자신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고통을 덜어 주며,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평안과 만족을 인간의 영혼에 가져다 주는 권고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판사는 세계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범죄와 위법 행위를 줄이고 우리 생활과 국가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려깊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옛 관습인 가족 기도를 다시 드리기를 제언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가족 기도가 옛 관습이 아니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는 일보다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종종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격언에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지낸다."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파이 삼서 18 : 21)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족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전형적인 말일성도 가족이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따스한 사랑과 단합과 화평의 영이 온 집안을 채웁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가 옳은 일을 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듣는 아버지가 자기의 귀한 아들의 기도를 존중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딸이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 영감을 받도록 하고, 성전 결혼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십대의 딸이 듣는다면, 그 딸은 자신이 그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의 겸손한 간구를 존중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자녀들이 그 가족 내에서 훌륭한 아들들이 합당하게 생활하여, 때가 되면 교회에서 주님의 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열심히 간구한다면, 그러한 아들들이 어찌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불타는 듯한 소망을 간직한 채 성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가족 기도나 혼자서 기도할 때,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만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자는 권고에 귀기울이기를 게을리 했다면,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기도는 약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무릎을 꿇고 있을 때보다 결코 더 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기꺼이 봉사함*

우리는 봉사의 본보기를 주님의 생애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는 선행으로 밝게 비치는 서치라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름발이의 사지에 힘을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먹은 자의 귀를 듣게 하시며, 죽은 자의 몸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간음으로 끌려 온 여인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중에 그분은 동정어린 이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달란트에 관한 비유에서,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향상하고 온전해지도록 노력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역할을 위해 준비하도록 얼마나 잘 준비시킨 것입니까? 남의 사기를 높여 주는 사람들은 남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노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봉사하는 사람의 본보기를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이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과 그분의 가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총관리 역원들에게 부친이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은 때의 상황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친은 임신 중인 아내와 일곱 자녀와 농장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분의 부친은 어떤 것을 잃었을까요? 벤슨 대관장님은 모친이 가족을 부엌의 식탁에 모으고 깜박이는 램프불 밑에서 남편에게서 받은 편지를 읽어 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모친은 편지를 읽는 동안 몇 번씩이나 멈추고서는 넘쳐 흐르는 눈물을 닦아 내고는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모든 자녀들이 후에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모두가 기꺼이 봉사했습니다.

셋째, *구원의 손길을 내밈*

인생의 길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는 도로 표지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막다른 길에 이르는 우회 도로를 찾게 될 뿐입니다. 무관심과 부주의와 이기심과 죄악은 모두가 인간을 영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해서, 정도에서 벗어나 장단에 맞추어 행진하다가 나중에야 자신들의 슬픔과 고통의 피리 소리를 따라갔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85년이 끝나갈 무렵에, 대관장단은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명하며 "돌아오라는 권유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특별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을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권고합니다. 한때는 활동적인 회원이었다가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된 분들에게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스럽고 만족스러운 우정의 열매를 다시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도 실천에 옮기는 데 어색함을 느끼고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맞아 들이며, 기꺼이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손길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바로 이곳에 하룻밤 사이에 성인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노를 억누르고 자존심을 자제하여 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아버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 기회를 갖게 하는 상황이 도처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잭이라는 소년의 가정을 예로 들어 관찰해 보기로 합시다. 잭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잭이 열 일곱 살이 되던 어느 날, 그들은 대단히 격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가겠어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라구요." 그와 같은 말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가방을 꾸렸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집에 그대로 있으라고 사정을 했지만, 화가 날대로 난 그는 어머니의 권유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전에서 흐느끼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앞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려 할 때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잭, 네가 집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이 나한테 있구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것을 알아 주렴. 나 역시 네게 좀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애쓰마. 언제나 널 사랑할 것이란 사실도 기억했으면 한다." 잭은 아무 말도 안한 채 버스 정류장으로 가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행 버스표를 한 장 샀습니다. 버스에 앉아 차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는 동안, 그의 머리에는 아버지가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런 말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돌아오라는 권유를 했으며, …난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여름 하늘에 울려 퍼지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잭은 다음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는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 주신 것과 동일한 성숙함과 선함 그리고 사랑을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잭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표를 샀고 마침내는 귀가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날 무렵 그는 도착해 집으로 들아가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떨군 채 흔들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를 들어 잭을 보자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으며,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잭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있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룻밤 사이에 성인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노를 억누르고 자존심을 자제하여 아들이 결손 가정의 결과로 생겨난 엄청난 "길 잃은 양떼" 가운데 하나가 되기 전에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아버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은 결속시키는 끈, 치유시키는 유향입니다. 사랑이란 흔히 느낌으로 오지만 거의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울리는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토성처럼 들려 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 : 12) 그리고 후일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교성 42 : 45)

무릎꿇고 기도하십시오.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도와 주십시오. 이러한 일은 집을 가정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설계인 하나님의 청사진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청사진에 따라 합당한 방법으로 솜씨를 다해 집을 짓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건축의 감리자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건축가였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열왕기상 9 : 3)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 가정과 영원한 가족을 갖게 될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님은 우리에게 강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청사진을 주셨다.

2. 이를 위한 세 가지 지침은—

(1) 무릎꿇고 기도함. 기도는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고통을 더 많이 경감시켜 주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준다.

(2) 기꺼이 봉사함. 남의 사기를 높여 주는 사람들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노하지 않는다.

(3) 구원의 손길을 내밈. 사랑은 결속시키는 끈, 치유시키는 유향이다.

유럽 무대에 올려진

러셀 엠 넬슨 장로
12사도 정원회

지난 오년간 유럽의 중부 및 동부 지역의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로 인해, 저는 개인적 시각에서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논평하는 글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들어 각종 드라마의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그 드라마에 대해 고찰해 보기에 앞서, 저는 먼저 하나의 소개 과정으로써 몇몇 기본 개념들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

• 십이사도 평의회의 회원의 단 한 사람이 기술한 본 기사는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각 처소에서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 역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전원은 이 기간 동안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부터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전역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헌신적 노력으로 이 대륙에 이루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총관리 역원들은 또한 교회를 세우고 관련 업무를 정리해 나가는 한편 성스런 지시에 따라 국가의 문을 열고 땅을 헌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름을 완수했으며 저를 비롯한 기타 여러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영감이 가득찬 훌륭한 표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사도의 임무는 특정의 어느 대륙이나 그곳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십이사도는 세상 열국의 거주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마태복음 28 : 16~19 ; 마가복음 16 : 14~15 ; 누가복음 24 : 47~48 ; 요한복음 21 : 15~17 ; 요한계시록 14 : 6 ; 모사이야서 3 : 13 ; 앨마서 29 : 8 ; 교성 42 : 58 ; 107 : 33 ; 134 : 12 참조.)

• 십이사도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대신" 칠십인을 소집합니다.(교성 107 : 38) 이처럼 거룩하게 영감받은 조직 형태 하에 칠십인은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면서 선교부장과 지역 지도자들의 임무 사항을 감독 · 지시합니다.

• 십이사도는 교회 대관장단에서 지명한 대로 봉사합니다. 그러한 위임을 받아 그들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경전상의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십이사도는… 어떠한 곳, 어느 국민에게 갈지라도 나의 왕국의 문을 여는 권능을 갖게 되리리"(교성112 : 21).

주님은 "나는 그 시간 안에 나의 일을 서둘리라"고(교성88 : 73)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장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이 화급하게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에 지극히 감사하게 합니다. 난공불락인 듯한 장애도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로 입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눅 1 : 37).

주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신앙개조 제12조를 적게 하셨을 때 영감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 이 영감에 찬 말씀은 오늘의 시대를 위해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종국에는 만국에 전해질 것임을 예언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현실에 관계없이 구원과 승영의 의식이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할 수 있으리란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침 받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충성하며 해당 국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눈부신 정치적 변혁기에도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럽 제국에 있어서의 교회 지도자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개진되었으며, 그와같은 중요한 정치 발전이 있을 때까지 두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만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고서는

드라마

그런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압력과 이데올로기의 갈등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빚어지는 의사소통의 난관 등으로 쉽게 좌우되어 왔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경은 전쟁과 조약으로 인해 변경되어 왔으며 도시는 폭격으로 파괴되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는 용감한 시민들의 불굴의 정신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교회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곳은 현재의 많은 지도자들의 조상들의 조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국 제도와 북유럽 지역에서의 초기 선교 사업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개척 기간 동안, 강건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힘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의 교회 발전은 그 범위가 너무 넓어

1991년 러셀 엠 넬슨 장로와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원들은 레닌그라드(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여름 정원을 방문했다. 이 보다 일년 전, 똑 같은 정원에서 넬슨 장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땅을 재헌납했다.

사진 : 크레이그 다이아몬드

오른쪽: 1982년 8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는 프라이베르크 독일 민주 공화국 스테이크를 구성했다 : 프랭크 허버트 애펄, 스테이크 부장 ; 한스 비 링거, 지역 대표 ; 고트프리트 리히터, 독일 민주 공화국 드레스덴 선교부 제일보좌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 몬슨 장로 ; 군터 슐츠, 드레스덴 선교부 제이 보좌. *오른쪽 끝*: 프라이베르크 성전은 1985년 6월 헌납에 앞서 공개된 바 있는데 6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본 기사에서 이를 적절히 고찰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할 국가들과 상황의 범위를 국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고의 도입 부분에서 필자는 여러 중요하고 상세한 사실들에 대해 삭제한 점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이의 양해를 구합니다.

극장이나 영화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등장 인물들과 작품이 있기까지 막후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표시한 자막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면이 한정되어 저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 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985년 말부터 1991년 중엽까지 유럽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한 다음에 열거한 총관리 역원들에게는 그들의 사심없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해야 하겠습니다 : 조셉 비 워슬린, 칼로스 이 애이시, 한스 비 링거, 데릭 에이 쿠스버트, 존 소넨버그, 러셀 시 테일러, 존 알 래새터, 알버트 슐레 이세 및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의연한 부부 선교사들과 개척자적인 선교사들에게도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독일 민주 공화국과 체코슬로바키아 성도들의 모범적인 행동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훌륭하고 의로운 모범으로 인해 그들 정부는 교회에 관해 문의하는 타국의 지도자들에게 긍정적인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칠십인의 한스 비 링거 장로에 대해 자주 언급할 것입니다. 그는 유럽 중부 및 동부 지역의 이 특별한 국가들을 책임맡아 유럽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습니다. 링거 장로는 스위스 태생으로서 건축 전문가이자 전기 기술자입니다. 이러한 임무와 관련해 그가 나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전문 성직자만을 대하는 데 익숙해진 정부 지도자들한테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의 그러한 독특한 특성이 당시 그들의 적개심을 오히려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모신 분들은 미국의 심장 외과의와 스위스의 건축가를 소개받았을 때 적잖이 놀랐으나 지금은 교회에 속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링거 장로에게 특별히 사의를 표합니다.

칠십인의 데니스 비 노이엔슈완더 장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 선교부에서 4년간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최근에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선구자적 노력은 본고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기념비적이었습니다. 과거 2년간 유럽에 새로 세워진 11개의 선교부 가운데 6개 지역이(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핀랜드 헬싱키 이스트, 그리스 아테네, 헝가리 부다페스트, 폴랜드 바르샤바, 그리고 불가리아 소피아) 그가 선교부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의 선교부 관할 지역으로부터 창설된 것입니다. 앞으로 선교부가 더 생겨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경이로운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워싱턴 디 시 소재 교회의 행정 위원회의 비버리 캠벨 자매, 랄프 더블류 하디 이세 회장 및 기타 회원들은 유럽과 기타 외국의 대사들 및 행정 장관들과 접촉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동료 및 동반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듯 놀랄 만한 업적을 이루는 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심부름 하는 자(교성64 : 29 참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리

본고는 유럽의 중부 및 동부 지역의 10개국에 촛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들의 지리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유럽에는 폴랜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현재까지의 독일 민주 공화국이 포함됩니다. 바로 그 날 독일 민주 공화국은 독일 연방 공화국과 통합되었습니다. 과거의 독일 민주 공화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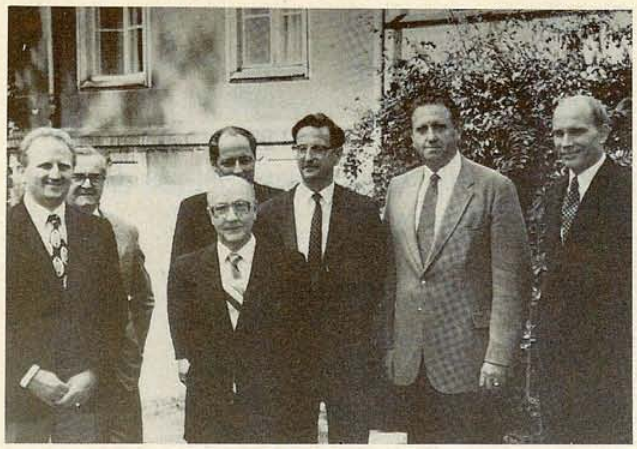


사진 : 팀 브로스나한

주권 실체는 본 드라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발칸 제국에는 5개국이 있는데 이름이 그렇게 명명된 것은 그들이 발칸 반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및 그리스입니다.

본고가 작성되고 있던 당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은 15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셋은 발틱해에 국경이 연해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라는 발틱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발행될 때는 소련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럽의 동쪽 변경은 우랄 산맥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우랄 산맥의 동부 소련은 지리상 아시아 대륙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우랄 산맥의 서부 지역은 동유럽의 일부입니다.

중부 유럽(Central Europe)이란 용어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유럽 대륙의 "중심"이라고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교회를 무대 위에 올려 놓고 시계를 다시 과거로 되돌려 놓도록 합시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1985년 11월 10일 교회의 13대 대관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대관장으로 성별된 후 목요일에, 대관장단은 각 십이사도들에게 어떤 임무를 부과했습니다. 저에게는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와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뒤를 이어 유럽에서의 제반 업무를 총 책임지는 제일 연락 책임의 임무가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대관장단에 계시는 몬슨 장로는 거의 20년간 중동부 유럽에서의 교회 업무를 인도하셨습니다. 맥스웰 장로의 경우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아프리카를 포함해 기타 유럽 지역의 제일 연락 책임자로 봉사하셨습니다.

당시 중동부 유럽에서의 교회 활동은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칠십인인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가 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선교부장이었습니다. "우정증진"을 담당하는 용기 있는 몇몇 부부 선교사들이 그의 지도하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부부는 폴랜드에서 봉사했고, 어떤 부부는 (오스트리아로부터) 헝가리를 왕래했으며, 또 다른 한 두 부부 선교사들은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리고 어떤 부부는 그리스에서 봉사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소련에는 누구도 부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치적 제약이 가해지던 수십 년간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이 독일 민주 공화국과 체코슬로바키아에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한 부부 선교사는 물론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정부의 압력으로 회원들의 활동은 제약을 받았다. 예를 들면, 1975년 넬슨 자매와 제가 체코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의료인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프라하에 있을 때, 저는 한 회원의 아파트에서 몇몇 성도들과 만났습니다. 그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는 침침한 조명이 켜 있는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들이 교회에 가입한 사실을 과거에는 딸에게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음을 지적한 두 회원의 열 다섯 살된 딸을 만났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상당히 위험스런 정보를 접했던 것입니다. 모임이 끝난 뒤, 지방부장이 우리를 투숙 중인 호텔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다 내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그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와 같이 강제적인 행동 제약을 받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나 독일 민주 공화국에서는 선교 사업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모두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전에 선교사의 축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오른쪽:폴란드에 세워진 첫 말일성도 예배당은 1991년 6월 헌납되었다. 오른쪽 끝:폴란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첫 예배당이 헌납된 것은 하나의 꿈이 실현되었음을 뜻한다. 아래:딸들과 함께 두 어머니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역 모임에 참가한 성도들과 함께 있다.

성전이 그 땅을 아름답게 장식함

1985년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민주 공화국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성전은 1985년 6월 29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에 의해 헌납되었으며, 헌납 기도에는 다음과 같이 훌륭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 "주님의 교회의 기록 가운데 이 날이 오래 기억되게 하소서. 감사와 고마움으로 이 날을 회고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쁨의 새 날이 시작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간구를 존중해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의 예언적 약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 회고해보면, 이 성전의 영향력은 이루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처럼 변화의 물결이 도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전에서 발하는 영적인 빛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집을 중심으로 모든 선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일반적 배경과 더불어 지금부터는 중부 유럽의 북쪽을 필두로 각 나라에서의 특별한 진전 사항에 대해 고찰해 봅시다.

1986년 5월 31일,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과 링거 장로를 동반해 종교 국장인 아담 로파트카와 비캐톨릭 관계 국장인 타듀쯔 두시크 그 일행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두 가지 희망 사항을 피력했습니다 :
즉, 젊은 선교사들의 폴란드 입국과 예배당의 구입 혹은 건축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수락되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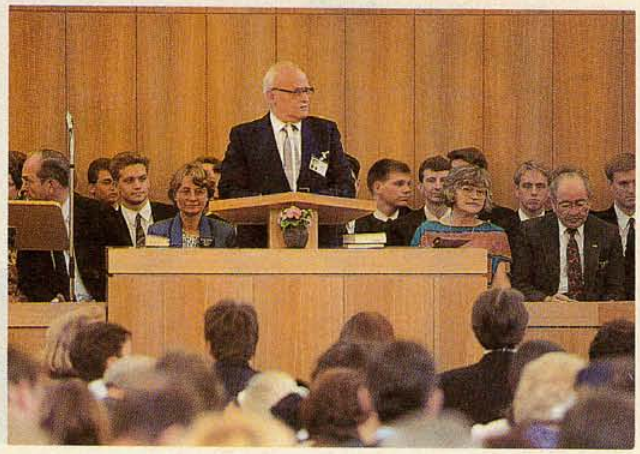
1989년 6월 15일, 우리는 폴란드 땅 위에 첫 말일성도 예배당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그 공사가 완공되어 1991년 6월 22일에 헌납되었습니다.

1990년 7월 1일 바르샤바에 그 본부를 두고 왈터 휘펄을 선교부장으로 하여 폴랜드에 첫 선교부가 세워졌습니다. 폴랜드 출신의 첫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워싱턴 타코마 선교부에서 봉사한 바 있는 우르설러 아담스커라는 이름의 젊고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바르샤바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최근 있었던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의 콘서트에서 해설자로 참여했습니다.

독일 민주 공화국

초기 교회사에 나오는 유력한 개종자들은 최근에 독일 민주 공화국으로 더 잘 알려진 지역 출신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칼 지 메이저는 드레스덴 부근의 마이쎈에서 출생했습니다.(그는 1875년 유타주 프로보 소재 브리감 영 아카데미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 이래 우리 회원들은 사려깊게 그리고 말없이 대단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 워슬린 장로, 애시 장로, 링거 장로 및 기타 총관리 역원들의 신중한 지도력은 정부 지도자들로부터 큰 존경심을 샀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원들이 의롭고 정직한 시민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도들의 이와같은 도덕적 온전함과 충실한 신앙으로 인해 프라이베르크에 성전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헨리 부르크하르트가 성전장으로, 그리고 그의 아내 잉게는 메이트론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르크하르트 부부는 수년간 독일 민주 공화국에서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이 한 번은 그곳의 지역 대회를 감리하면서, 부르크하르트 성전장으로 부터 축복, 부름, 성별, 혹은 도움이 되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손을 들어 표시하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중 가운데 대다수가 손을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렇듯 부르크하르트 가족의 영향력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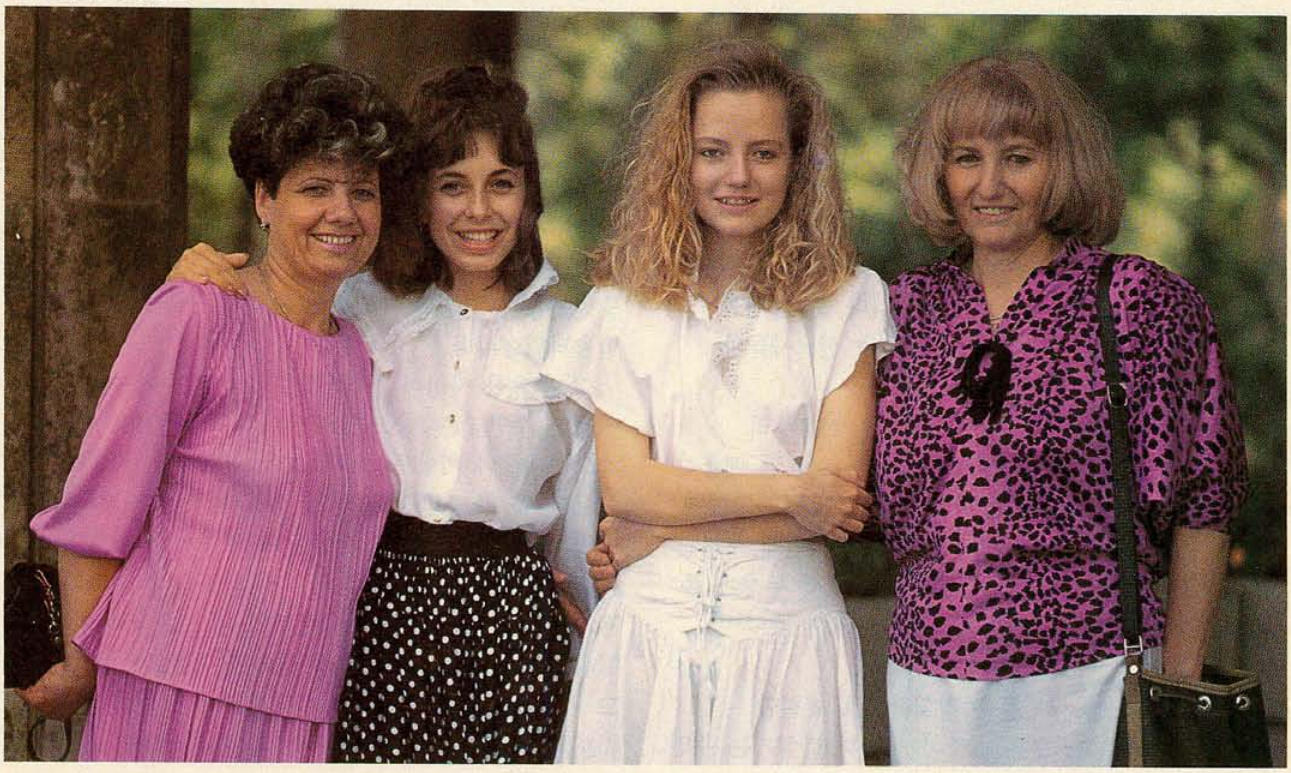


대단했습니다.

1988년 10월 28일, 링거 장로와 부르크하르트 성전장 그리고 기타 교회 지도자들을 동반하여 벤슨 부대관장님과 저는 동 베를린에서 정부 관리들과 회동했습니다. 우리는 단독직입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그곳 태생이지만 타국에서 생활해 온 선교사들의 독일 민주 공화국 입국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독일 민주 공화국 내의 합당한 장로들이 2년 동안 세계의 타지역에서 선교사업을 하기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두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 (토마스 에스 몬슨, "하나님께 감사함",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참조.)

부임하여 떠나는 선교사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야 할지,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인지 혹은 특정 국가를 지정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물어 본 몬슨 부대관장님께 독일 민주 공화국 정부는 각별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관해 개별 협의를 거친 후에 그들의 대변인은 간단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그들을 파견하십시오." 그리하여 10명의 첫 장로들이 잉글랜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및 칠레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진 : 크레이그 다이아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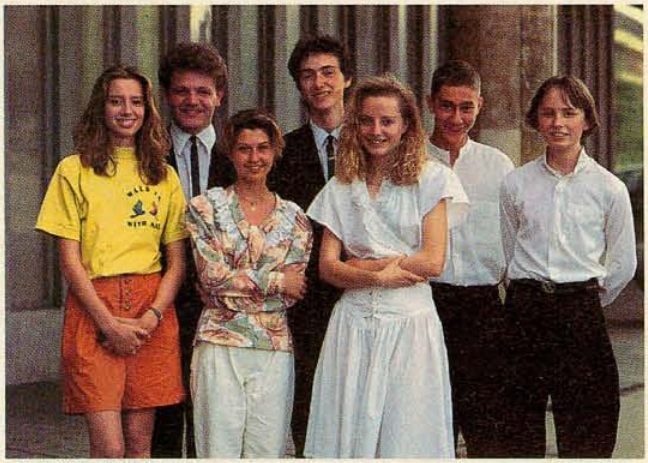


사진 : 크레이크 다이아몬드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선교 사업을 수행했으며, 그후 영광스럽게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1989년 3월 28일, 볼프강 폴 부장의 지도하에 소그룹의 선교사 제일진이 독일 민주 공화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는 그 선교사들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후 약 일년 반 동안 천 백명이 넘는 개종자가 침례받았습니다.

폴 선교 부장 부부가 처음 드레스덴으로 이주했을 당시 그들의 자녀들은 러시아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가정 교사가 그들에게 주선되었습니다. 이 교사는 결국 교회로 개종해 침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부모 역시 후일 똑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연이은 일련의 사건으로 1990년 10월 3일 급기야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후 3주도 채 못된 10월 21일, 몬슨 부대관장님 및 링거 장로 그리고 저는 이곳에 교회를 재조직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다시 왔습니다. 베를린에서 가졌던 대회의 일반 총회에 거의 2,50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성도들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 회중은 거의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또한 베를린에서 150명이 넘는 선교사들과 만났습니다.

1991년 7월 1일 선교부가 분리되어, 이로부터 만프레드 에치 쉬츠 선교부장을 주축으로 독일 베를린 선교부가 새로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쉬츠 부장에게 자리를 넘겨준 폴 선교부장의 선구자적 노력에 우리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마그누스 알 미저 부장이 폴 선교부장의 후임으로 독일 드레스덴 선교부를 맡았습니다.

현재 독일과 그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재결합 되었으며, 교회 회원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주인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단합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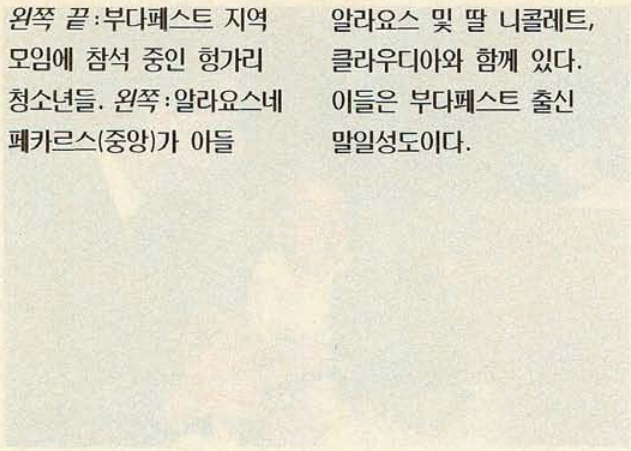
체코슬로바키아

이 나라에서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정은 험난했고 때로는 좌절감도 맛보게 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임무 지명을 받은 이래, 링거 장로와 저는 프라하에서 정부 관리들과 만나기 위해 적어도 매년 한번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여행했습니다.

약속이 깨진다거나 "교회를 승인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는 아직도 검토중입니다."라는 공언으로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희망이 두 차례 걸친 해외 여행에서 얻은 대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2월 6일 프라하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접촉했던 그 정부 관리가 해당 직위에서 축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임자는 우리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승인해 달라는 귀하의 요청은 이달 내로 승인될 것입니다. 귀 교인들은 다시 온전하게 예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 역시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그리하여 공식 승인은 2월 21일에 내려졌고 1990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천명되었을 때 저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즈비르비 스브네더플러 지방부장이란 점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약 2년 반 전에 링거 장로와 본인은 교회의 승인 요청이 체코인 교회 회원에 의해서만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브네더플러 형제 부부의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우리는 종교 문제 평의회 의장으로부터 방금 그 사실을 접수받았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체코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이 종교적 혹은 반정부적



왼쪽 끝:부다페스트 지역 모임에 참석 중인 헝가리 청소년들. *왼쪽*:알라요스네 페카르스(중앙)가 아들 알라요스 및 딸 니콜레트, 클라우디아와 함께 있다. 이들은 부다페스트 출신 말일성도이다.

신념으로 인해 투옥되거나 사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알고난 우리는 스브네더플러 형제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는 그에게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숙고한 뒤 스브네더플러 형제는 겸손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내인 올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포옹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이 일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사업은 우리의 자유나 생명보다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몇달 뒤 서류가 적절히 갖춰지자 스브네더플러 형제는 이를 개인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 뒤로 그를 비롯한 우리 회원들은 엄격한 감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용기와 신앙으로 정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후 드디어 그 영예로운 교회 승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토록 많은 심문과 위험을 잘 견디어 준 스브네더플러 부부와 용감한 모든 회원들에게 본인은 어느 정도로 경하한다는 말을 전해야 할 것인가! 스브네더플러 형제는 육년 이상 충실한 봉사를 한 부르크하르트 성전장에 이어 1991년 9월 1일부로 프라이베르크 독일 성전을 관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올가 스브네더플러 자매는 잉게 부르크하르트 자매의 뒤를 이어 성전 메이트론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7월 1일, 40년간 금지되었던 체코슬로바키아 선교부가 다시 문을 열었고, 리차드 더블류 윈더 형제가 선교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그 나라에서 첫 선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내 바바라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직에서 해임되어 그들이 아주 적격이라고 생각한 이 중요한 임무 지명에 남편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헝가리

대관장단의 승인을 받아 저는 1987년 4월 19일 부활절 안식일에 부다페스트의 겔러트(Gellért) 산에서 헝가리를 헌납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링거 장로와 저는 종교 문제 평의회 의장인 이므레 미크로스와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우리를 약간 긴장된 분위기에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으며 원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태도임이 분명했습니다. 상황이 그리 원만히 진행되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회동이 있기 이틀 전 그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사도로서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 지도자에게 알려주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언급하자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내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30분간 하기로 했던 회담이 1시간 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때로부터 그는 우리의 친구이자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뒤 몇 차례 있었던 연속 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4개월이 흐른 후, 링거 장로와 저는 1988년 6월 14일 헝가리에서의 교회의 공식 승인을 확인해 준 미크로스씨와 함께 공식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다페스트로 돌아왔습니다.

1989년 10월, 유럽 선교부장 및 그들의 배우자들을 위한 연례 세미나가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토마스 에스몬슨 부대관장님과 프란시스 제이 몬슨 자매가 우리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 세미나가 열리던 10월 17일에 헝가리 의회는 국호를 헝가리 인민 공화국에서 헝가리 공화국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민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1990년 7월 1일 제임스 엘 와일드를 선교부장으로 하여 새로운 선교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예배당은 몬슨 부대관장님에 의해 헌납되었고, 여러

회중들은 그곳과 기타 유력한 위치에서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몬슨 부대관장님은 대관장단으로 부름받기 직전인 1985년 10월 31일 이 땅을 헌납했습니다. 교회 지도자 자격으로서 제가 그 나라를 처음 방문한 것은 1987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링거 장로와 저는 유고는 물론이고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를 담당하는 정부의 종교 문제 국장을 만났습니다. 한 때 브리감 영 대학교의 주전 야구 선수였던 크레스미르 코지크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코지크 형제는 유고슬라비아 국민들에게 스포츠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정부 관리들은 "몰몬"교회의 지도자를 특별히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텔레비젼에서 정규적으로 보았던 코지크 형제만큼은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그레브에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예배당을 갖고 있으며 기타 주요 도시에도 회중들이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봉사중인 장로들과 부부 선교사들은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 선교부에서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민족 분규의 평화적 해결책을 온 마음을 다해

사진 : 페기 챌링하우젠

왼쪽 끝: 이반과 보니 발레크. 발레크 형제는 유고슬라비아 성도들을 위해 지방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왼쪽*: 오스트리아 소재 유럽 난민촌 어린이들이 독일 말일성도 선교사를 만나고 있다. *아래*: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 소재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 선교부의 라이안 콕스장로와 킴 심슨 장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루마니아

링거 장로와 제가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 처음 간 때는 1987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예비 접촉을 통해 정부 관리들과 친해졌습니다.

루마니아의 장기 독재 정권을 하야시킨 유혈 혁명 발발 5주 후인 1990년 2월에 우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2월 9일, 대관장단의 승인을 받아 저는 루마니아 땅을 씨스미기우 공원에서 헌납했는 데, 이는 번역하자면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의 공원이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에 있던 여인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떠올려보노라니 이는 대단히 상징적인 뜻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 : 13~14). 우리는 새로운 정부 지도자들에게 교회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부카레스트 한 곳에만도 3만명이 넘는 고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인도 봄베이의 자선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 및 기타 지역에서 악조건하에서도 외과 수술을 집도하면서, 아주 가슴 아픈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었지만 이번 고아원에서만큼 비극적인 상황은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구호품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 회원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주 후하게 이에 참여했습니다. 이 불행한 어린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트럭에 필수품들을 실어 보낸 유럽의 성도들에게 나는 특별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성숙한 인간미를 지니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며 전문적 준비를 갖춘 몇몇 말일성도들은 몰몬경 시대의 암몬이 그러했듯이(앨 17장 참조), 부카레스트에서 특별 자선 구호 봉사를 하라는 부름을 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노고는 교회사에 기록된 어느 다른 개척자들 못지않게 뜻깊은 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현재 헝가리 부카레스트 선교부장의 지도하에 봉사하고 있으며 회원과 교회에 관심있는 친구들로 구성된 회중들이 정규적으로 루마니아에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1988년 10월 30일, 링거 장로와 제가 불가리아의 소피아 시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간접적인 "제삼자" 접촉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을 것이며 그와 관련된 약속도 정해졌음을 믿어왔습니다.(말하자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전제 국가 정부의 지도자들은 대개 서면 약속 확인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불가리아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마중나오기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우리를 엉뚱한 호텔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우리는 올바른 숙소를 찾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짐을 손에 든 채 눈보라 속을 헤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양국 언어를 구사하는 호텔 교환수가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지도자들이나 그 사무실을 찾아주질 못하자, 그 이튿날도 우리의 실망은 계속 되었습니다. 진정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른쪽 : 에스토니아 탈린 출신의 한 회원이 왼쪽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 밖에서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끝 : 러시아 공화국 부통령인 알렉산더 루트스코이씨(오른쪽)는 1991년 6월 24일 러시아에서의 교회의 공식 승인을 발표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게리 엘 브라우니 핀랜드 헬싱키 동 선교부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

일이라고는 도움을 간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루 뒤 오전 10시에 기적적으로 우리는 불가리아 종교 문제국의 국장인 쯔비아코 쯔베트코프씨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막 소피아 시로 돌아온 상태였으며, 통역관도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처음 분위기는 상당히 냉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온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통역관의 입을 빌어 그는 이렇게 질책을 가해 왔습니다. "넬슨? 링거? 몰몬이라구? 난 당신들에 관해 전혀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말에 제가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역시 귀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서로 알게 되었군요."라고 응답하자 모두 다 웃었고, 우리는 훌륭한 모임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링거 장로와 제가 소피아로 돌아온 것은 1990년 2월이었는데, 당시 대관장단의 허가를 받아 2월 13일 *나스보보다타* 공원("자유 공원"이란 뜻)에서 사도로서 헌납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방문 기간 중에, 우리는 다시 쯔베트코프씨와 다른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메스컴의 여러 대표들과 회동했습니다. 불가리아 국제 재단 이사장이 우리에게 영어 교사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러겠노라고 확약했습니다. 그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능한 교사들이 부름을 받아 파견되었습니다. 1990년 10월 이사장이 우리와 우호를 지속시키기 위해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불가리아에서 영어 교수를 시작한 자매 선교사와 부부 선교사들의 노고에 경탄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과의 접촉으로 구도자들이 선교사들에게 소개되었고 그후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1991년 7월 1일에는 교회의 268번째 선교부가 새로이 탄생했습니다. 키릴 키리아코프 형제가 현재 불가리아 소피아 선교부장으로 봉사 중입니다. 1991년 7월 10일, 불가리아 정부는 교회의 공식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성도들과 친구들로 구성되는 회중들이 현재 불가리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이스

1985년 12월 제가 아테네로 첫 임무지명을 받았던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이스에서의 교회의 성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1990년 7월 1일에는 알 더글라스 필립스를 선교부장으로 하는 그리이스 아테네 선교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이스의 선교부 산하 지부들은 예전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선교부에 속하였으나, 후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 선교부 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회원들은 자신의 복음 선교사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친구를 가르치고 지부를 강화시키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와 현대의 사도들의 개인적인 성역에 의해 축복받은 이 땅에서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이 나라는 종교를 법으로 금지하고 1967년 알바니아를 무신론 국가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링거 장로는 1991년 4월 알바니아의 수도 티레인(Tirane)을 방문해 이 소국의 지도자들과 현실적 여건에 친숙하게 되었는데 이 나라는 최근에서야 장기간 유지되어 온 헌법상의 무신론 규정을 폐지시켰습니다. 알바니아 국민들이 복음과 교회 회원들의 관용으로 축복받기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가 가장 좋은 때인 듯합니다.

사진 : 크레이그 다이아몬드

처치 뉴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U.S.S.R)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이며, 그 중 하나가 러시아 공화국입니다. 기타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및 발트 제국이 이에 속합니다.

저는 비록 외과의 자격으로 소련을 세 차례나 방문하기는 했지만, 교회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링거 장로와 함께 1987년 6월 대단히 중요한 진상 조사의 임무를 띠고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종교 문제 평의회 의장 및 러시아 정교회, 개신교, 그리고 유대교 등과 같은 기타 종파의 지도자들과 회동했습니다. 또한 유대교 수석 랍비(Chief Rabbi)인 아돌프 샤예비치의 초청을 받아 우리는 모스크바의 유대교 회당에서 진행되는 성년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1988년 12월 아르메니아 대지진 참사의 희생자들을 원조하기 위한 8월 8일 협정에 조인하기 위해, 1989년 8월 우리는 캘리포니아주 출신 자선사업가인 알맨드 해머 박사 및 유타주 출신의 존 앰 헌츠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동안 이를 위해 후하게 자발적으로 헌금해 준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관대함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단 한푼도 강제로 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직접 혹은 소속 감독이나 지부장을 통해 소중한 헌금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소련 방문에서 우리는 종교 문제 평의회 의장을 만났으며, 교회의 승인은 연방 차원에서가 아니라 해당 지역별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명의 성인회원들이 서명한 탄원서가 요식 행위로 필요했고, 그들 모두는 해당 정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소련 시민이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에서는 공개 복음 전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어떤 종교든 믿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도 없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20명의 회원들을 모을 수 있단 말인가? 또 교회의 법적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회원 숫자가 20명도 안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후 몇달 만에 우리는 20명의 회중을 갖게 되었고 레닌그라드(현재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더 많은 회원이 생겨났습니다.

이들 초기 교회 회원들의 개심은 참으로 주님의 사업에 관한 경이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부장과 그의 아내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을 때 교회를 알게 되어 1989년 7월 1일 침례를 받았습니다. 핀랜드 헬싱키 출신으로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가정 복음 교사들이 레닌그라드로 돌아오자마자 이 새 개종자들을 방문하라는 지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자매는 잠시 레닌그라드를 떠났다가 기적적으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베트라나라고 하는 이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는 러시아어로 쓰여진 성서를 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서는 희귀하여 아주 값이 비쌌습니다. 1989년 가을, 그녀 자신과 남편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는 성서를 구하기 위해 헬싱키로 갔습니다. 헬싱키의 한 공원을 걷는데 낙엽으로 덮힌 땅 밑에 감춰져 있는 어떤 물체가 그녀의 발에 채였습니다. 그것을 집었을 때 그녀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물체는 다름아닌 러시아어로 쓰여진 성서였던 것입니다. 너무 흥분되고 기쁜 나머지 그녀는 이 훌륭한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역시 공원에 있었던 다른 어머니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스베트라나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러시아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른쪽 끝: 열렬한 음악회 애호가들은 역사적인 1991년 순회 공연의 마지막 기착지인 레닌그라드의 필하모닉 홀(오른쪽)에서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아래*: 러셀 엠 넬슨 장로와 자매 그리고 태버내클 합창단원들은 레닌그라드의 관심있는 몇몇 장소를 여행했다.

또다른 책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스베트라나는 물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스베트라나에게 러시아어판 몰몬경을 주고 그녀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바로 라이자 캠파이넨으로서 당시 핀랜드 헬싱키 선교부 발트 지역 선교부장이었던 유씨 캠파이넨의 아내였습니다. 그후 얼마 안되어 스베트라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레닌그라드로 돌아왔습니다.

이 초기 개종자들은 친구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회복된 복음을 듣게 했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1990년 4월 26일, 우리는 정부 관리들을 만나 레닌그라드 지부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그 날 저는 마즈필드(Mars Field)를 막 벗어난, 네바 강(Neva River)과 인접한 여름 정원(Summer Garden)에서 감사 및 재헌납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곳은 1903년 8월 6일 복음 전도를 위해 십이사도 평의회의 프란시스 앰 리맨 장로가 러시아를 헌납했던 그 장소입니다.

레닌그라드 지부의 공식승인 허가는 1990년 9월 13일에 났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도시에 있는 회중들이 답습할 중요한 선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소련 여권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초대 선교사로 부름받은 회원은 에스토니아 탈린 출신의 야누스 실라 장로였습니다. 침례받은 직후에 그는 선교 사업을 할 기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장애가 그런 그의 소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그는 출국 비자와 선교사 기금 그리고 어머니의 지지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의 선교부장인 스티브 알 미컴은 계명을 준수하고 그의 의로운 소망이 관철되리라는 신념을 가지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이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한 장애들이 극복된 것입니다. 실라 장로는 현재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선교부에서 봉사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시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한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련의 발트 지역으로 첫 발을 조심스럽게 들여 놓았을 때 레닌그라드와 비보르크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에서 핀랜드 헬싱키 선교부를 관할하던 미컴 선교부장에게 특별한 감사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은 현재는 1990년 7월 1일 창설된 핀랜드 헬싱키 동 선교부의 게리 엘 브라우닝 선교부장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관장단의 승인을 받아, 저는 1990년 4월 25일 에스토니아를 헌납했습니다. 탈린시와 발트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선택받은 부지는 라우루라바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부 에스토니아인들은 자기 나라의 영혼이 바로 이곳에 깃들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들어오는 계단식 관람석이 있는 극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언덕 위 큰 상록수 밑에서 특별한 헌납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현재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에는 교회 지부가 없지만, 때가 되면 그곳 사람들 역시 교회와 그 소중한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공화국은 1991년 5월 28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공화국 부통령인 알렉산더 루트스코이씨가 1991년 6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이 역사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토니아에 이어 15개 소련 공화국들 가운데 두 번째로 러시아 역시 교회를 공식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이 신앙을 간직하고 선교사업을 열망하는 소련의 교회 회원들을 돕기 위해 복음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 그들은 관광 비자로 들어가서 도움을 준 뒤, 약 3~4일 정도 잠시 체류하다가 본부로(헬싱키

사진 : 크레이그 다이아몬드

혹은 비엔나)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이 탈린에 처음 들어간 때는 1989년 12월 8일, 레닌그라드는 1990년 1월 19일, 키에프에는 1990년 10월 7일, 그리고 모스크바에는 1990년 10월 18일이었습니다. 1991년 7월 현재 각 도시에는 두 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1990년 2월 17일 레닌그라드에서 첫 러시아인 말일성도 개종자에 대한 침례가 러시아인 말일성도 제사에 의해 베풀어졌습니다. 한편, 많은 소련 시민들은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교회를 알게 되었다가 귀국해, 발전하고 있는 교회의 씨앗을 자신들의 고향 도시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전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울 기회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 : 19)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련되는 것이 분명함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로는 러시아 공화국의 쿠르간, 레닌그라드(최근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개명되었음), 모스크바, 소치, 비보르크 및 제레노그라드와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탈린,

처치 뉴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사진 : 크레이그 다이아몬드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키에프, 그루지아 공화국의 수쿠미 등이 있습니다.

1991년 6월,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교회와 전세계 회원들이 아르메니아에 쏟아준 구호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도인 예레반에 시설 설비를 하도록 교회에 땅을 기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존 햄 헌츠만과 그의 아내 카렌 및 기타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내 1988년 12월의 참혹한 대지진으로 집을 잃은 수천의 피해자들을 구호했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출신의 데이빗 앰 혼은 시간과 기술을 바쳐서 이 희생자들을 위해 안전한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라는 교회의 특별한 부름을 쾌히 받아 들였습니다. 1991년 6월 24일 예레반에서 헌납된 바 있는 설비는 6,500호의 아파트를 세우기에 충분하고 매년 2만 5천 명에게 집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199년 6월 24일 댈린 에치 옥스 장로에 의해 헌납 되었습니다. 그와 저는 아르메니아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기념물 근처 예레반 시가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백설로 덮인 아라랏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은 노아의 방주가 잠시 멈추었던 곳입니다.(창세기 8 : 4 참조).

1991년 6월, 몰몬 태버너클 합창단은 역사적인 유럽 8개국 순회 공연 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일정에는 폴랜드의 바르샤바, 독일의 프리드리히스도르프 · 프랑크푸르트 · 드레스덴 · 베를린,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체고슬로바키아의 프라하 및 소련의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공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회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보르, 스위스의 쮜리히,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헌신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노래를 부름으로써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중요한 여행의 영향력은 교회 잡지에 실린 기사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제이 엠 토드, 성도의 벗, 1991년 4월 ; 러셀 엠 넬슨, 연차 대회 말씀, 1991년 10월 참조.)

옥스 장로와 저는 그 중요한 여행에서 태버내클 합창단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 즉시 우리는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 공연 여행의 성과에 대해 1991년 7월 3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우리는 그분께 러시아 공화국이 교회를 완전 승인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의 공증 사본 몇 부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처럼 기뻐하시던 그분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1984년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은 이래 우리가 함께 나눈 가장 소중한 기억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벤슨 대관장님께서 잊지못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종종 언급하시던 일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올랐습니다. 1959년 10월 1일 당시 그분은 모스크바의 어떤 교회 설교단에서 회중들에게 의연한 자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구속주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평안을 간구하신다면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중들에게 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통역되자, 이를 지켜본 어느 사람의 표현대로, 여성들이 손수건을 꺼내 마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영원한 이별이라도 고하는듯이 이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이 기간 동안 교회를 관장하셨고, 자유를 전파하시면서 온 세계인들에게 값진

왼쪽 끝: 모스크바의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두명의 소련 회원, *왼쪽*: 태버내클 합창단원들이 모스크바의 유명한 붉은 광장을 거닐고 있다.

몰몬경을 공부하여 이로써 "세상을 홍수로 쓸어내듯이 쓸어내림"(모세서 7 : 62)을 간구하신 바 있는 이 예언자는 교회가 러시아 공화국에서 완전 승인받았다는 희소식을 접함으로써 생애에 결실을 거두셨다 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조망함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본고는 지명받은 임무에 관한 하나의 개요이자 결론적인 개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5년이 넘는 주요 기간동안 내가 유럽에서 한일을 증인의 입장에서 발췌해 고찰해 본 것입니다. 현재 대관장단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의 임무를 변경시켰습니다. 이 신성한 정원회 소속 각 회원들은 연공 서열에 따라 자리를 계승하는 과정에 있어 교회와 전세계 모든 분야 및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넓혀야 함을 대관장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 12월 유럽에 대한 일차 접촉권한이 유능한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에게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자격으로 여러 가지 탁월한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유럽(그리고 기타 대륙)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 단젤과 가족들은 신앙의 기도로 나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감행할 때 위험이나 적대감을 도처에서 접하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기술한 드라마는(교회의 성장 속도로 볼 때, 본고가 인쇄되어 나올 때는 이미 구식이 되어 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유럽 전역 가운데 일부분에만 촛점을 맞췄을 뿐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 사도들의 헌납 기도가 아프리카, 남미, 중미, 남태평양 및 아시아의 제국에서 올려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표현대로 주님의 사업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확산되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1831년 9월 11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부근 몰리 농장에 모인 교회의 장로들에게 1831년 9월 11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셨던 훌륭한 권고를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는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성 64 : 33)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그 사건을 부연해 기록했습니다 : "일요일 밤 예언자는 모든 신권 소유자는 작은 통나무 학교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13평방 미터 정도의 작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그 당시 커틀랜드에 있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소유자 전부를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예언자는 자신과 같이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 사업에 관해 간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간증을 끝내자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 밤 이곳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대해서 어머니 무릎에 앉아 노는 아기보다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주님 앞에서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십니다…[이는] 남·북 아메리카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이는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대회 보고, 1898년 4월 6일, 57쪽.)

예언자는 이 교회의 앞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가 1세기 반 전에 예견했던 성장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그와 똑같은 이해력과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고, 그분의 사업은 주님의 정하신 때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세계를 가득 덮을 것입니다. □

우리의 다양성과 우리의 자매애

삽화 로리 엔더슨

모니커 펄머 자매가 독일의 한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할 때, 앤이라는 활동이 저조한 자매와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앤의 방문 교사들은 앤에게 교회에 나올 것을 권했으나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나오기를 망설였습니다. 자매들은 결국 그녀를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 앤은 집회소 뒷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와드의 자매들이 그녀를 받아들임에 따라 그녀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자매들이 앤을 상호부조회 음악 지도자로 부르자고 추천하는 바람에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음악에 관하여 아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앤은 그 부름을 받아 들였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도움으로 앤은 자신의 부름을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배웠으며 그 후에는 와드내의 다른 지도자 직책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앤의 남편도 침례를 받았으며, 성전에서 가족 인봉도 받았습니다.

"자매애에 관하여 생각할 때 마다 저는 앤을 떠올립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사랑과 인정으로 그녀는 자신이 환영받고 있으며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 하나가 됨

1842년 3월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을 때, 20명의 창립회원들은 목표와 신앙에 있어서 하나였지만 생활 양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아내로써 교회 회원이 아닌 상점 주인의 새 신부도 있었고 미혼인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매들 각자가 힘을 합하여 이 소중한 사업을 시작해 나갔던 것입니다. 1992년 현재 전 세계에 약 278만 명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대에서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같은 조직의 회원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린도전서 12 : 20~21, 27)

다양한 재능으로 공통된 노력에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개개인을 축복함

우리가 일체감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우리는 각자의 차이점을 참으로 가치있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성 각자가 자신의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재능도 찾아낼 것을 권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해 줌으로써 자신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일레인 엘 잭 회장은 말씀합니다.

테네시주 킹스톤에 살고 있는 샌드라 에드워즈는 침례받은 지 몇 년 되지 않아 남편과 이혼하고 뇌졸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끔찍한 교통 사고로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이 위기의 기간 동안 그녀가 속한 지부의 회원들만이 그녀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 주고 자녀들을 보살펴 주며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또한 격려와 사랑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도 끔찍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저에게 외톨이가 되었다거나 부끄럽다거나 고독하다거나 쓸모 없다거나 혹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존 케이 카먹 장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살리며 단합해 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생활에 포함시키고 수용하며 또한 일체감을 이루어 나가는 태도를 만드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자신을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엔사인*, 1991년 3월호, 9쪽)

우리는 어떻게 각 개인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

안식일을 깨달은 일요일

클리티 클리거

내가 교회로 개종한 후에도 복음의 모든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같은 교리가 처음에는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침례 받기 전에 나는 일요일 오후면 축구에서 연날리기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오락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그룹을 이끌어 나갔었다. 나는 그것이 전혀 나쁘게 생각되지 않았으며 교회에 참석하면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룹의 단합심을 강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우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일요일 오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 특별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날 친구들이 아이스하키를 하기를 원했으나 선수가 모자랐다. 나는 좋은 생각이 떠 올랐다. 지부장님 가족인 해리슨 댁에 전화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가정에는 자녀가 일곱 명이 있는데 그 중 넷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연령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숫자도 두 배로 불어날 것이고 더불어 그 친구들과 교회 회원들이 서로 사귀는 좋은 방법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부장님댁의 장남인 레스에게 전화를 하자 그도 쾌히 승낙했다.

지부장님 댁에 들어가 그들이 스케이트와 여분의 바지를 챙기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문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헤리슨 지부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으며 레스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제서야 내가 그들의 심각한 토론을 방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에 침묵을 깨고 지부장님이 나를 보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일요일에 나가서 노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말씀해주었다. 그런데 나는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가? 네 명중에서 세 명만 데리고 갔지만, 무거운 죄책감이 느껴졌다.

그 주에 성도의 벗이 배달되어 나는 안식일에 관한 기사를 몇 가지 찾아 보았다. 그 주제에 관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아 보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읽어 보았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련한 "금지 사항" 목록을 정성들어 작성했으며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다음 주 일요일에 나는

웰던 엔더슨 사진

우리가 요양소의 두 자매님을 방문한 것은 우리의 일요일을 안식일이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함께 경전을 읽고 찬송가를 불러 드리면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으며 그 경험에 대해 훌륭한 느낌을 가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안식일의 영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무엇인가 빠진 것이 틀림없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 아이스하키 경기가 또 있었고 1월에도 몇 번 일요일을 보냈지만 안식일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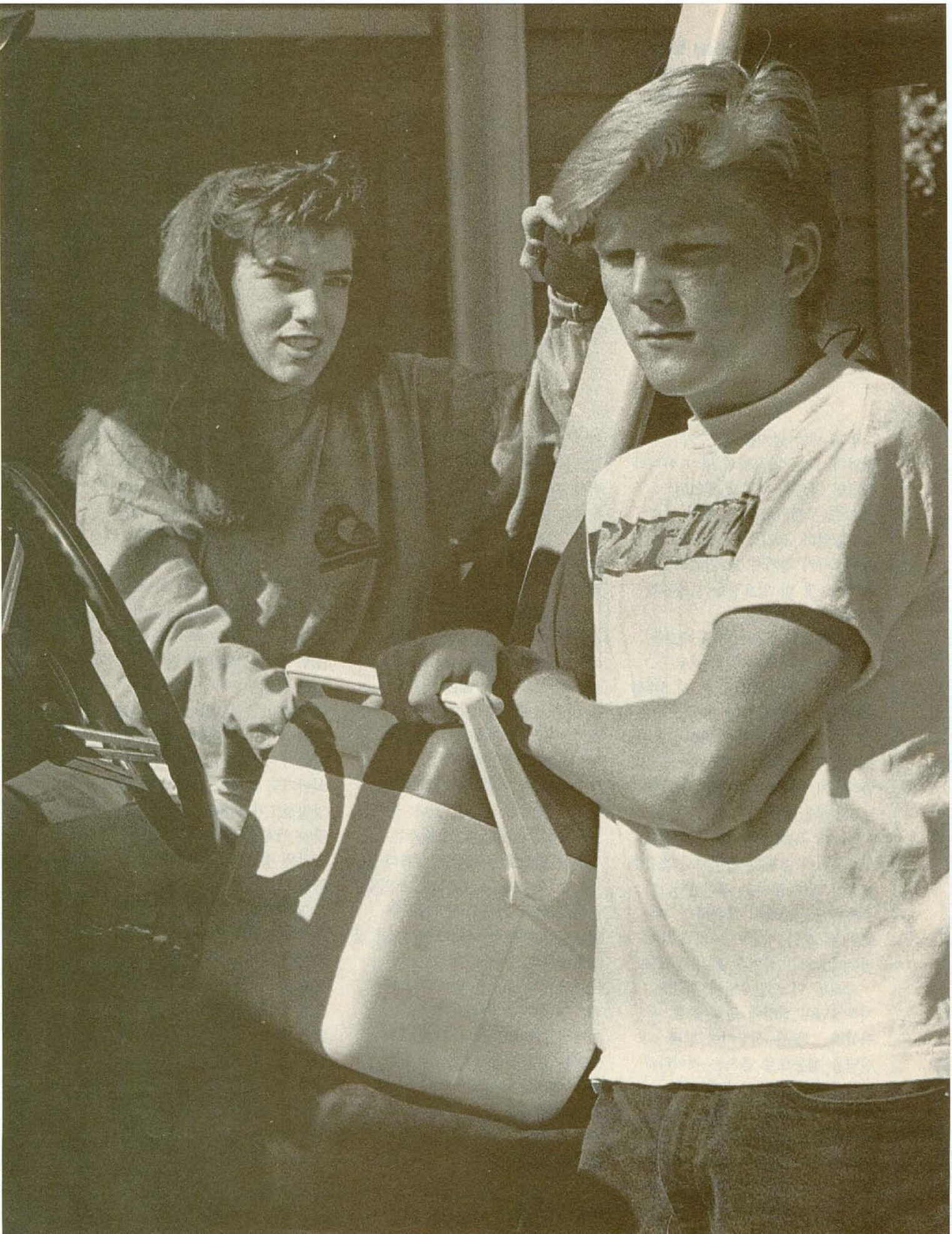
그런데 2월에 키드라는 새로운 개종자가 조그만 우리 지부로 이사왔다. 그는 회원이 된 지 5개월 되었으며 정말 대단한 열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다니는 대학에서 요양소를 포함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매 결연 맺기 프로그램을 발표하자 키드는 교내에서 우리가 유일한 말일성도 학생들이니 우리도 참여해서 훌륭한 모범이 되어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요양소에서 생활하는 지부 회원 두 분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실천은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에 헤리슨 지부장님이 신앙에 관해 말씀 하셨다. 그분은 신앙이란 말과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오후에 나는 키드와 요양소에서 지내는 두 자매님을 방문하기로 했다. 첫 번째 방문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다. 자매님을 한분씩 방문해서 기껏 "안녕하세요?" "네" 정도의 말 밖에 하지 못했다. 그곳을 나오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첫째, 그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우리는 더욱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에 지방부 대회를 마치고 150마일을 달려 집으로 오면서 많은 시간동안 키드와 나는 레스 해리슨과 누이 동생인 리앤과 포샤(간호학과 학생)에게 그 자매님들을 방문하자고 설득시켰다.

우리는 두 자매님을 휠체어에 태워서 조용한 곳으로 갔다. 키드는 교회 잡지 기사를 읽고 레스는 경전을 읽었으며 포샤는 아름다운 기도를 해 드렸다. 우리는 그 일로 좋은 느낌을 가졌으며, 다음 주 일요일에는 일곱 명의 독신 성인 및 청소년들과 함께 갔다. 해리슨 지부장님이 승낙을 얻어 레스와 키드는 성찬을 축복하며 자매님들에게 드렸다. 그런 후에 우리는 그분들을 요양소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휠체어로 모시고 가서 찬송가를 불러 드렸다. 우리는 교대로 교회 잡지 기사와 시와 경전을 읽어 드렸다. 그리고 끝으로 폐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다. 떠나기 전 세 시쯤 되어서 우리는 모두 배가 고팠기 때문에 레스는 우리를 그의 집으로 초대해서 스프와 과자를 대접해 주었다. 그래서 그 일요일 오후에 다시 지부장님댁에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이스하키 느낌이 달랐다. 주중에는 우리 일곱명이 모두 자기 생활을 해 나가고, 또한 우리들 대부분이 가족 회원은 아니었지만 일요일 오후만 되면 두 시간 동안은 탁자에 둘러 앉아서 레스의 부모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선교 지역 안에서 말일성도가 외따로 떨어져 사는 것에 관한 문제들도 토의했다. 그것은 정말로 영감에 찬 경험이었다.

그런데 다른 몇몇 모임에 참석하고 10시경에 집에 돌아오니 계획했던 계보 사업이나 선교사에게 편지쓰는 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밤 무릎꿇고 기도하면서 나는 짧은 하루동안에 맞추어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더 많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 그 특별한 날을 성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



선교 사업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선교 사업이 훌륭한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2년을 훌륭하게 보내는 여러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 사업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다음 대답은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답

여러분의 와드를 둘러보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선교사로 봉사한—정말로 존경하는—사람을 찾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선교 사업이 과연 가치있는 것인지 물어 보십시오. 필경 그는 선교사 경험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는 데도 하지 못했던 분은 종종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을 한 의사의 경우를 살펴 봅시다. "대학 재학시에 저는 의사가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떠나 있는 이년 동안 저는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오늘 저는 제 삶에서 상이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갔던 친구들 보다 2년 앞서 사람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영적인 고통을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의 의학적인 치료는 겨우 몇 년밖에 진행되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치료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 저의 의학 업무와 선교사로 나갔던 친구들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경솔하고 이기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선교 사업을 행하는 더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2년을 바쳐서 그분을 위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더욱 바라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분께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기회를 회피한다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배우는 경험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온전히 집중하여 선교 사업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를 원만히 하는 방법과 복음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관해 매우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전과 교회 교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취하였던 방법들을 실행함으로써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침으로써 여러분은 구세주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분을 더욱 크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성역에 더욱 동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더욱 훌륭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그분께서 가족과 친구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선교 사업 기간이 계시와 영적인 경험이 영광스럽게 연속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교 사업은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련 속에서도 일련의 성취감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이것을 견뎌내겠습니다." 선교 사업을 통해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유대를

크레그 티 모어 사진

맺게 됩니다.

2년 동안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헌신함으로써 경험하게 될 기쁨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저 바깥 세상에는 수십 억이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더욱 온전케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내려진 모든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평생 장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틀림없이 그 2년 동안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이 귀환할 때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봉사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떤 일을 할 기회를 놓치도록 방치해 두실 것 같습니까? 물론 지금도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선교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말기에 교회에 들어와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 주시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또한 함께 일한다면 선교 사업에서 경험할 기회를 놓쳐 버린 것들을 배우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 2년간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바쳐 헌신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기쁨이 얼마나 클 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교성 18 : 10~17 참조)

청소년들의 대답

선교 사업이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감독님이나 지부장님 도움을 청하십시오. 옳은 일들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알린 스웨이비, 16세
자마이카
맨체스터

양심에 따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감독님께 말씀 드리고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훌륭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린 마메이어, 19세
아메리칸 사모아, 파고파고

형제님의 질의를 알고 저는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저도 그 느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서 결혼도 하고 학교에도 다니고 싶고 제 스스로를 책임지는 생활을 하고도 싶었습니다. 사실 제 생활의 모든 것이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과는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겸손한 상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언제나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시간들을 진실로 제가 찾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속적인 즐거움이 조금도 그립지 않습니다. 귀환하면 그러한 것이 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봉사한 후에는 더욱 밝은 빛으로 세속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바즐리 2세, 장로 20세
필리핀 일라간
선교부

저는 어느 귀환 선교사가 "선교 사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때 빈정대면서 "흥, 나도 나갈거라구!"라고 생각하곤 했지만 어쨌든 저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제가 선교 사업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시 와서 복음을 알게 해 주어 감사하다고 할 때, 또한 그들의 생활이 더욱 훌륭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선교 사업은 더욱 가치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웨인 쉴라서 3세
장로, 21세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 선교부

저는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은 모두가 자신의 선교사로써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어떤 기회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간증을 강화시키며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훌륭한 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엘리자베스 모일, 16세
뉴질랜드, 윤딘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아야 할 훈련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제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하우루 장로, 22세
나이제리아, 아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디제이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돈을 벌고 방송 업무를 통해 귀중한 경험들을 얻는 동안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머리 깊이 박혀 왔습니다. 심사 숙고한 끝에 저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해 나가면서 저는 인생에는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것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환하고 나니 제가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일했던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화를 걸어 저에게 복직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에 응했으며 늘 하고 싶었던 스포츠 보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려고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려 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형제님이 주님의 사업을 맨 앞에 둘 때 주님께서는 형제님의 인생의 목표도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캇 시 밀러, 23세
유타주, 바운티풀

얼마 동안 이곳 선교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복음 선교사들과 가까이에서 일해본 결과 정직하게 말씀드리건대 형제님이 2년 동안 다른 무슨 일을 하든 선교 사업을 할 때만큼 많이 배우지도 또한 행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어떤 기대감으로써가 아니라 특권이며 축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캐미 헨더슨, 20세
일본, 오끼나와

선교 사업을 나감으로써 형제님은 복음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샨 니브, 15세
호주, 퀸즈랜드, 카팔라바

여러분이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 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을 1992년 7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 S. A.

편지 안에 여러분의 성명, 나이, 도시 및 와드와 스테이크 명을 꼭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모국어로 쓴다면 그것은 번역되어 실릴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돌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편지가 아주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은 익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편지가 다 실리지는 않습니다.

질문 : 저희 가정은 도무지 가정답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잠이나 자는 곳 같습니다. 가족들은 다툼도 자주하고 제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가족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

위싯 카나캄

데이비드 미첼

햇볕이 잘 드는 예배당, 맨 뒷줄 의자의 뒤켠 바닥에 한 남자가 행복한 모습으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며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 아기는 그의 아기가 아닙니다. 아기의 엄마에게서 잠시 건네 받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복음 원리 공과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남자에게는 아기를 팔에 눕혀 안을 수 있는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위싯 카나캄으로 태국의 치앙 마이 지방부장입니다. 그가 아기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세 지부의 오백 명 회원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마음과 같습니다. 회원들은 카나캄 부장이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 원리대로 생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 그는 그의 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교회 안에서 활동적으로 지내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사항은 바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나 그저 경전만 공부하는 것, 혹은 단지 부름받은 직책에서 봉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모든 복음의 원리들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서로 도와 가면서 가정에 사랑과 유대를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을 잇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 아내는 일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일을 하지만 오후에는 우리 두 아이들을 보살피고 빨래도 하고 그릇도 씻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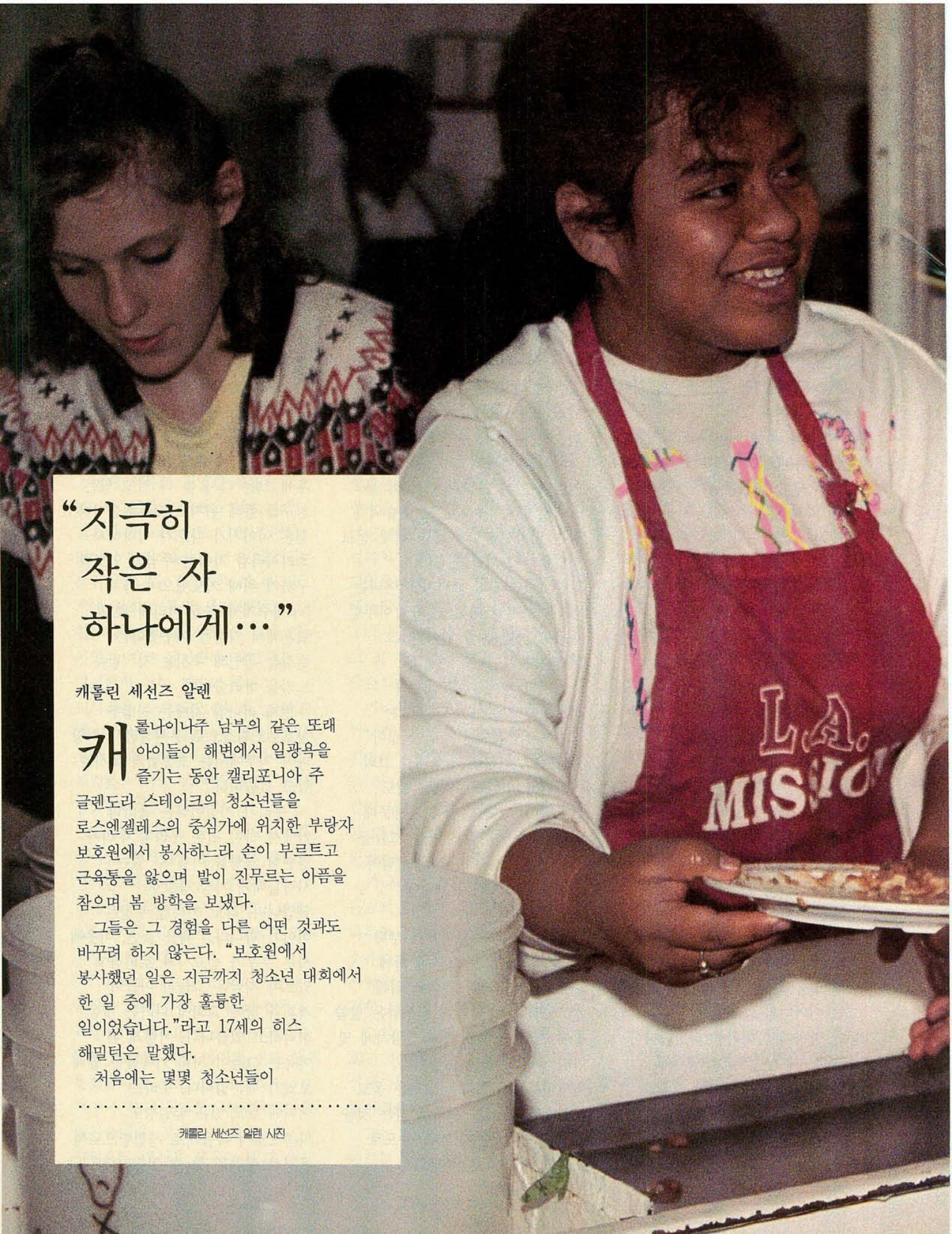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곱살 먹은 딸, 위수찰락(별명은 부앙)이 낮잠을 깨서 꾸벅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 옵니다. 아버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그녀는 텔레비젼을 켭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긴 했지만 내용은 다소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 만화 영화입니다. 아버지가 다가가 팔로 딸를 꼭 껴안아 주더니 차분하게 그 프로그램은 그녀가 볼 만한 게 못된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딸을 설득해서 밖에 나가 여덟 살 된 오빠, 위수디폰(혹은 벤이라고 부릅니다.)과 함께 놀도록 합니다. "저희는 저희 아들을 몰몬경에 나오는 베냐민 왕의 이름을 따서 벤이라고 부르지요."라고 카나캄 부장이 말합니다.

"집에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활동은 우리의 간증을 키워주고 우리들을 영적으로 강화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우리가 재배하는 오렌지와 망구아를 잘 보관한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열매를 따고 저장 준비를 하게 합니다. 우리는 또한 가족 기록, 즉 가족 역사 뿐만 아니라 개인 일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모두 교사인 카나캄 부장 부부는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아들을 가족 기도와 교육 훈련을 활용해 돕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선생님들께서는 아들의 학습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가정 교사를 붙여 줄까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기도를 한 뒤에 우리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교사는 바로 그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따른 우리의 결정은 옳은 것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필요 사항을 이해하고 도와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카나캄 부장 부부가 그들의 자녀, 위스디폰(왼쪽), 위수찰락과 함께 있다.

데이비드 미첼 사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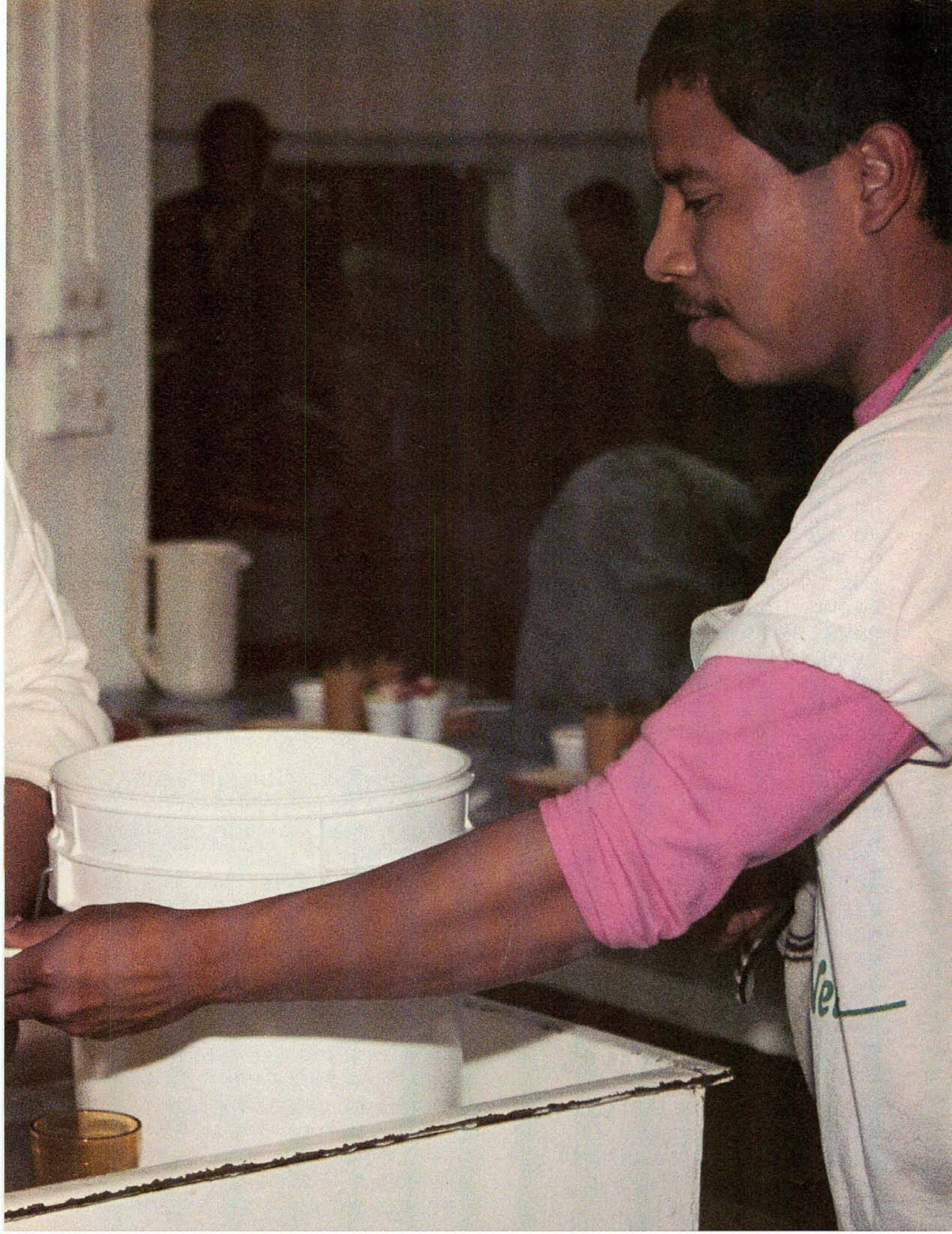
캐롤린 세선즈 알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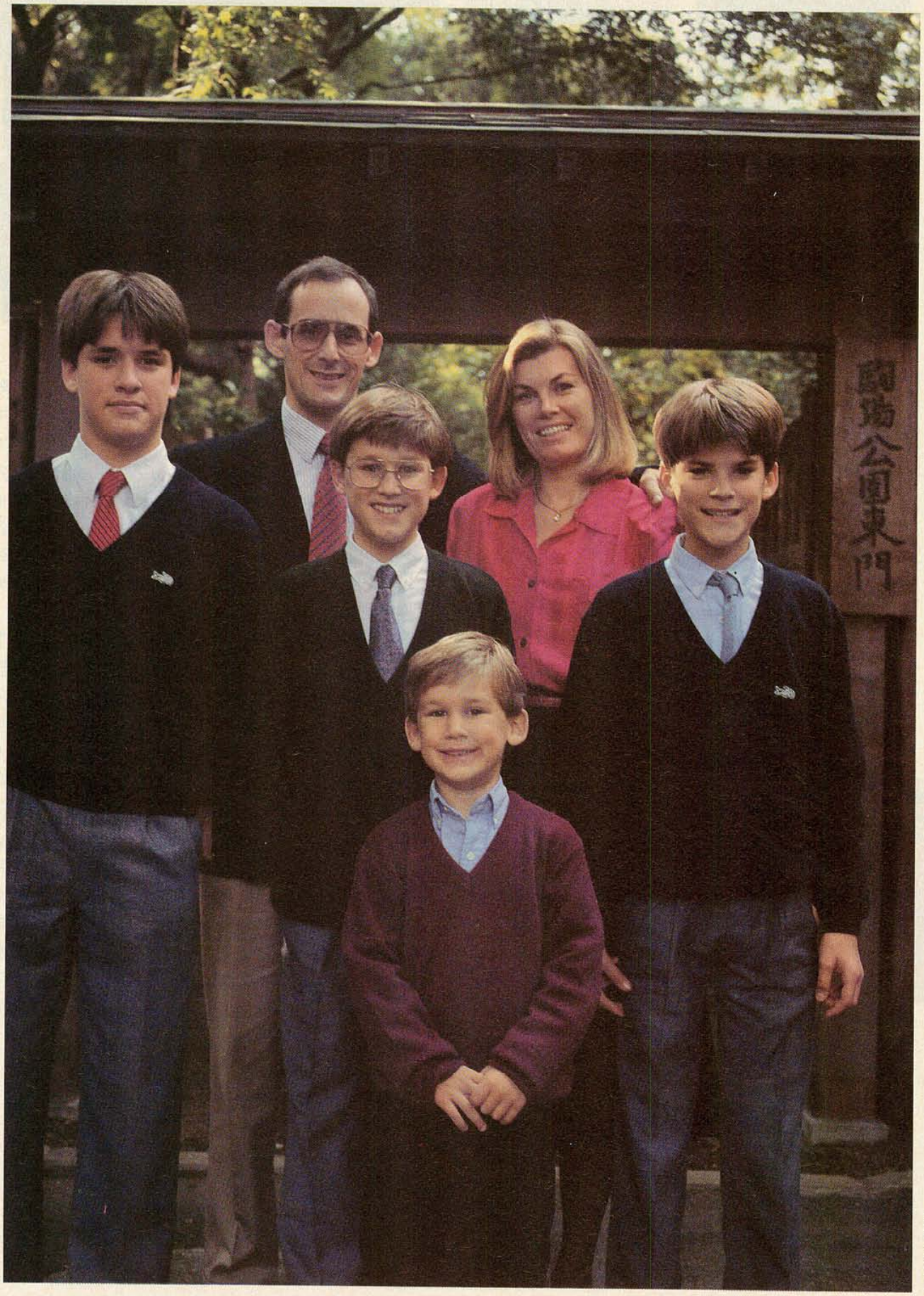
캐롤나이나주 남부의 같은 또래 아이들이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 글렌도라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을 로스엔젤레스의 중심가에 위치한 부랑자 보호원에서 봉사하느라 손이 부르트고 근육통을 앓으며 발이 진무르는 아픔을 참으며 봄 방학을 보냈다.

그들은 그 경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보호원에서 봉사했던 일은 지금까지 청소년 대회에서 한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이었습니다."라고 17세의 히스 해밀턴은 말했다.

처음에는 몇몇 청소년들이

캐롤린 세선즈 알렌 사진





김시 (주)동 회년

국제적인 가족

호주, 브라질,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영국, 스코틀랜드, 지브랄타, 홍콩, 일본, 케냐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고든 스미스 가족입니다. 그들은 사이먼과 로스티야와 네 자녀, 곧 열 네 살 된 데이비드, 열 세 살 난 조오지, 열 두 살된 리챠드 및 다섯 살 헨리이다.

자칭 국제적인 조직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은 현재 일본 동경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사이먼은 개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현재의 직업을 갖기 전에 그는 교회의 아시아 지역 시설 부장으로 일했다.

"남편의 아버지는 호주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어머니는 지브랄타 태생이시구요. 그의 부모님들이 케냐에서 외교단의 일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제 남편이 태어났지요. 저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큰 아들을 브라질에서 낳고 둘째와 셋째 아들은 영국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홍콩에서 낳았습니다.

동경 자택 근처 고마바 공원에서 네 아들과 함께 한 사이몬과 로스티야 고든 스미스 부부. 좌로부터 데이비드(14), 조오지(13), 헨리(5), 리차드(12).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는 교회와 같이 국제적인 가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요."라고 로스티야는 이야기한다.

고든 스미스 가정의 범세계적인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 시작된다. 그곳에 살던 18세의 대학생 로스티야는 고국에서 장래에 대한 희망을 거의 가질 수 없었다. 부모님들은 이혼한 뒤에 어머니는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버리고 아버지는 투옥되었다. 아버지가 석방되어 나오자, 그녀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지요."라고 말한다. "저는 어렴풋이 자유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어렴풋이 보이는 자유"는 학생 시위 도중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그녀와, 같은 세대의 다른 젊은이들은 비록 억압이 따를지라도 자유와 평등의 사상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다.

로스티야는 영어를 공부하러 가겠다고 위장하고 영국으로 가도 좋다는 비자를 받았다. "제게는 슬프고 외로운 시기였어요. 저는 가방 한 개와 5달러를 가지고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런던에 당도했어요."라고 그녀는 회상하며 이야기한다.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나기 전에 그녀는 런던의 한 영국인 가정에 가정부로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일 년

CELTIC

맨 왼쪽: 홍콩 자택에서의 고든 스미스 가족. *왼쪽*: 축구는 고든 스미스 집안 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이다. *아래*: 가족 피라밋은 각 회원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상징한다.

정도 지낸 후에 로스티야는 산다는 것 외에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친구들의 권고로 그녀는 런던 대학에 입학했다. "학자금을 위해 저는 오전 5시 부터 10시까지 기차역에서 신문을 팔고, 오후에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한 뒤에야 제 거처인 다락방으로 돌아와 공부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 그녀는 역시 학생이었던 사이먼을 만났다. 만난 지 일주일 후에 사이먼은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 처음에 로스티야는 망설였다. "저는 그에게 직업을 갖고 싶을 뿐 결혼이나 자녀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8개월 후에 그들은 결혼했다. 같은 해에 사이먼은 토목 공학을 전공하고 로스티야는 동 구라파어를 전공하여 둘 다 졸업을 했다. 사이먼은 첫 직장을 스코틀랜드에서 구했다.

2년 후에 집으로 돌아 온 사이먼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브라질로 이사가지 않겠느냐고 로스티야에게 물었다. "언제예요?"라고 묻자 그는 "내일"이라고 대답했다. 얼마 후 그들은 브라질의 산토스에 살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사이먼은 해변을 따라 송유관을 가설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삶에 새 장이 펼쳐짐을 알았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였다.

그 젊은 부부는 곧 귀화인 단체에 가입하였으며 로스티야는 그곳에서 헌신적이고 개방적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흥미를 갖게 되었다. 로스티야가 자신을 소개하자 한 여성이 "'고든 스미스' 가족들은 영어 발음이 완전한데 '로스티야'는 분명히 아니예요."라고 말했다. 이에 로스티야는 "그건 제가 체코 사람이기 때문이예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체코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에 로스티야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바로 그곳에서 로스티야는 체코 태생으로 브라질에서 자랐으며, 돈 클라크라는 미국인과 결혼한 자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클라크 부부와 고든 스미스 부부는 곧 친구 사이가 되어 영화관에도 함께 가고 테니스도 함께 치며,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다. 어느 날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클라크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로스티야도 있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몰랐지요."라고 로스티야는 말한다. "그들 두 젊은이는 평범하게 짧은 머리에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들이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막연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데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가정에서 함께 경전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참 이상하게 들렸지요."

교회 회원인 돈과 자자 클라크는 고든 스미스 가족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클라크 가족은 고든 스미스 가족을 교회 모임에 초대했다. 그것은 금식 간증 모임이었다. 로스티야는 이렇게 말한다.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본 것이라고는 모든 사람들이 우는 것이었지요.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 당황했어요.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지요. 돈 클라크씨가 제게 모임이 어떻냐고 물었을 때 전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모두 히스테리같아요.'"

얼마되지 않아, 돈과 자라는 사이몬과 로스티야를 상파울로에서 열린 지역대회에 초대했다. 그 대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브라질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스티야는 예언자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애정에 감명 받았다. 대회가 끝난 뒤에 고든 스미스 가족은 선교사 토론을 받는 것에 동의했다.

회개에 관한 공과를 할 때 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데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회개의 과정이 논리적인 것 같았어요"라고 로스티야는 말한다. 어느 새 그녀는 회개에 관해서 생각하며 화해에 대한 글도 쓰게 되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회개의 원리에 대하여 기도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랬지요. '만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라고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그러더군요. '10층에 누군가 살고 있는 지 어떤 지를 어떻게 알 수

홍콩에 거주하는 동안, 열 세 살 된 데이비드 고든 스미스는 아빠인 사이먼이 지도하는 지역 축구단에서 활동했다. 와드 선교 책임자 및 초등협회 교사로 봉사해 온 사이몬은 가족이 동경으로 이사할 당시에 홍콩 아일랜드 스테이크의 감독단에 있었다.

있겠습니까? 초인종도 눌러보지 않고 말이예요. 누가 나오는 지 어떤지 한 번 초인종을 눌러 보시지요.'

"어느 날 그릇을 씻으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말대로 따라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따스한 물결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전 다시 기도를 시작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자 그 따스한 기운이 더욱 강하게 느껴져 왔습니다. 저는 수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과 보호하심이 저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질문을 모두 했어요. '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입니까?' '몰몬경이 정말 참됩니까?'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때 영의 힘으로 응답이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친구가 된 자자 클라크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리쳤어요. '제가 그걸 얻었어요! 그걸 얻었다구요!' "무엇을 얻었단 말이예요?" 그녀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간증 말이예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로스티야와 사이먼은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후에 침례를 받기로 계획했다. 대회 모임 중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가 회중에게 간증을 전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분은 로스티야에게 연단으로 나와 달라는 손짓을 했다. 돈 클라크 형제가 포르투갈어로 통역하는 가운데 그녀는 영어로 간증을 전했다. 간증을 마쳤을 때 그녀의 두 볼에는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하자, 돈 클라크 형제님이 저를 돌아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도대체 이런 히스테리가 뭐란 말이지요?'"

브라질을 떠나기 전에 고든 스미스 부부는 친구인 리차드와 샐리 하드킥 부부를 교회에 소개시켜 주었다. 리차드가 수술을 요하는 중상을 당했을 때 고든 스미스 부부는 샐리와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다. 로스티야는 "여보, 당신이 리차드에게 축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라고 하자 샐리가 물었다. "축복이라구요?" 결국 축복이 주어졌으며 또한 성취되었다. 하드윅 부부는 교회 회원이 되었다.

고든 스미스 가족은 브라질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뱅쿠버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사이몬은 또 다른 송유관 공사에 참여했다. 1985년 공사가 끝났을 때, 사이몬이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가서 교회를 위해 일할 길이 열렸다. 사이몬은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예배당 건축을 감독했다. 또한 일본과 한국 교회의 관리 보조도 겸했다.

이 기간 동안 체코슬로바키아에 정치적인 변화가 옴으로써 22년 만에 처음으로 로스티야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제 감정을 뭐라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유와 개방의 새 물결로 인해 국민의 생활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네 아들은 여행을 즐기면서 훌륭하게 적응해 나가는 법을 배웠다. 로스티야는 네 아들을 "세계의 시인"이라고 부른다. "저희는 그 애들이 인내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문화와 다른 신념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데이비드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잘 부른다. 그는 축구와 수영을 좋아한다. 그는 변호사나 사업가가 되기를 원한다. 그는 거의 매번 간증 때마다 간증을 전한다. 조오지도 피아노 연주와 노래를 잘 한다. 그는 운동 선수이다. 그는 의사가 되어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 그는 혼자 힘으로 몰몬경에서 읽은 대로 기도를 통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리차드는 그림을 잘 그리고 수학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도 피아노를 잘 치며 또한 운동 선수이다. 그는 건축가가 되는게 꿈이다. 헨리는 형들이 하는대로 흉내내려고 노력한다.

로스티야는 세계 여러 곳에서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가족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욱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는 서로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세계는 매우 좁은 곳이며 우리는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모든 악들 물리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

CELTIC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가다

로스티야 고든 스미스

1990년 7월. 저는 고향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떠나온 고향, 제가 태어난 고장,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떠났었습니다. 이제, 몇 달도 안된 사이에 물밀듯 한 변화가 온 나라에 밀려 들어와 저는 자유롭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오래 전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은근히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웬지 관광객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둘러 보아도 더 작고 더 초라하게 보였으며 마치 저는 저의 가족과 어린 시절의 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착한 지 며칠 후였습니다. 인파로 가득한 거리를 따라 걷고 있다가 문득 저는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혈육의 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같은 민족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크나큰 애정과 소속감이 저에게 덮쳐왔으며 45년간 무서운 통제를 겪은 후에 얻은 자유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제가 고향을 떠난 이후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학교 친구들과 가진 모임에서 저는 제가 교회의 회원임을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저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체코 말로 된 교회의 다른 서적과 함께 몰몬경을 한 권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선교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들은 이제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그들이 그들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새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튼튼하고 단단한 기초 위에서 시작하십시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프라하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참석했는 데 그곳에서는 회원들이 임대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고 친척 및 친구들과 복음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저의 장남 데이비드가 성찬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 가진 간증 모임에서, 그는 성찬 전달의 경험을 통해 신권에서 오는 축복과 임무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형제들과 만나게 된 것은 나에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언니 일로 우너 케버트와 언니의 딸 올가가 저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올가는 복음 선교사들의 모습과 태도에 매우 감동하여 "저는 제 나이의 청년들에게서 저런 모습과 저런 행동을 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같이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리차드 더블류 윈더 부장 내외를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전 이래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첫번째 선교부장입니다. 저의 언니는 윈더 부장 내외에게 매우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선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를 뒤에 두고 떠나온 것이며,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그들의 검소한 생활 방식,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랑 등에 감동한 것입니다. 저의 언니는 그들의 영을 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나기로 한 날 닷새 전, 윈더 부장은 저에게 대관장단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할 것이며 프라하에서 160킬로미터 떨어진 브르노에서 모임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윈더 부장은 제가 모임에 참석하여 힝클리 부대관장님의 통역을 맡을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일을 받아들였으며, 언니와 함께 브르노를 향해 차를 달렸습니다.

그 모임은 저의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힝클리 부대관장님과 힝클리 자매님 및 유럽 지역 회장인 한스 비 링거 회장과 링거 자매, 윈더 선교 부장과 윈더 자매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함께 했습니다.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제가 그분의 통역을

맡아 교회 용어를 체코어로 번역하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 하는지를 깊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 모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언니는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으며 회중석에서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방문한 이후로 저는 제가 심은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조카 올가가 침례를 받았으며 지금 그녀는 가족과 함께 영국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올가가 저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모님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저는 이모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모님의 말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회원으로서 저는 압니다. 저는 제 나이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가지게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할 지를 알았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가서 저는 제가 잃어버린 뿌리라고 생각했던 저의 가족과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소망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원적인 갈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널리 퍼질 것이며 체코와 슬로바키아 성도들이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교회라는 가정에서 합당한 자리를 차지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

***위*: 로스티야 고든 스미스 자매는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간 1990년에 리차드 더블류 윈더 선교 부장 내외를 만났다. *왼쪽*: 그녀의 언니 일로우너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 내외와 함께 한 로스티야. 로스티야는 브르노에서의 교회 모임에서 힝클리 부대관장님의 통역을 맡았다. 그녀는 현재 일본 동경에 있는 제2와드 상호부조회에서 영적인 교사로 일하고 있다.**

오른쪽 차선으로 가시오

빅터 미겔 보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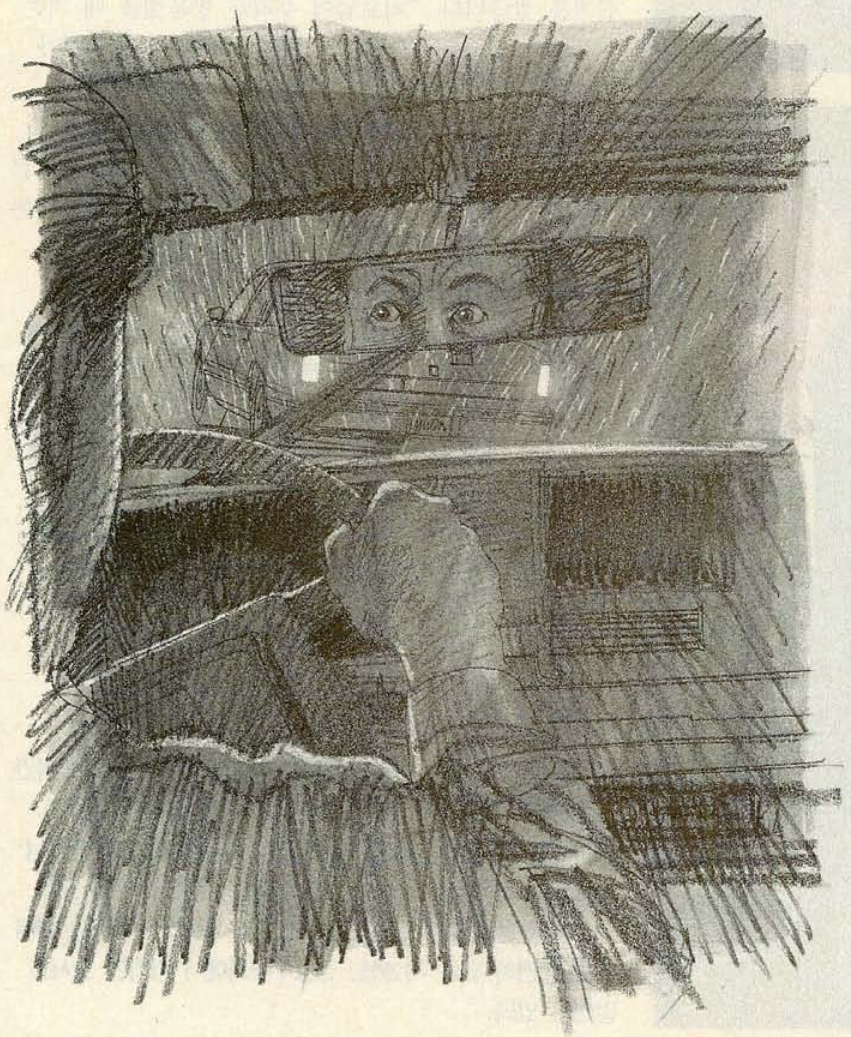
1988년 3월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나는 내 차의 안개등과 깜박이등이 고장났기 때문에 정비소로 자동차를 가져가는 중이었다. 고속 도로를 향해 달리다가 나는 저속 차량을 위한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야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 길에 접어들었을 때, 어찌된 셈인지 나는 고속 차량 노선인 왼쪽 차선에 들어서 있었다. 나는 시속 약 70킬로 미터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커브를 돌았을 때 2차선의 바로 앞쪽에 자동차가 멈춰서 있는 것이 보였다.

순간적으로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는 차선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을 뒤에 오는 차에 알려주려고 오른쪽 깜박이등을 켜려고 했지만 작동되지 않았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른쪽으로 꺾어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트럭이 바로 옆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왼쪽은 질퍽질퍽한 긴 노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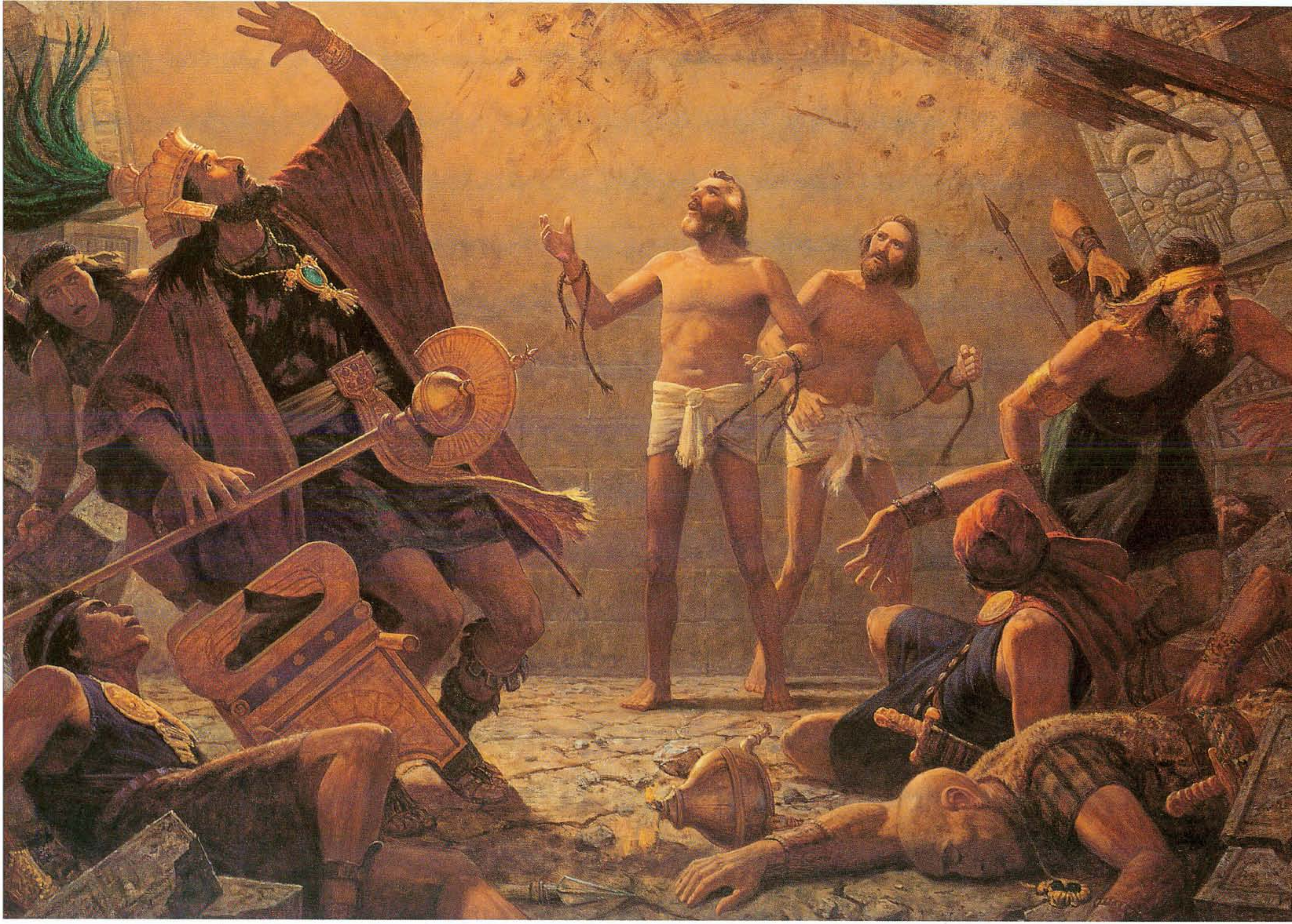
달리 해야할 바를 모르는 채 나는 브레이크에 발을 얹었다. 길이 젖어서 미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내 차는 2차선에 서 있는 차의 바로 뒤에서 멈추었다.

나는 비를 맞으며 차에서 내려 커브를 도는 다른 자동차들과 트럭에 신호를 보내며,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나는 성신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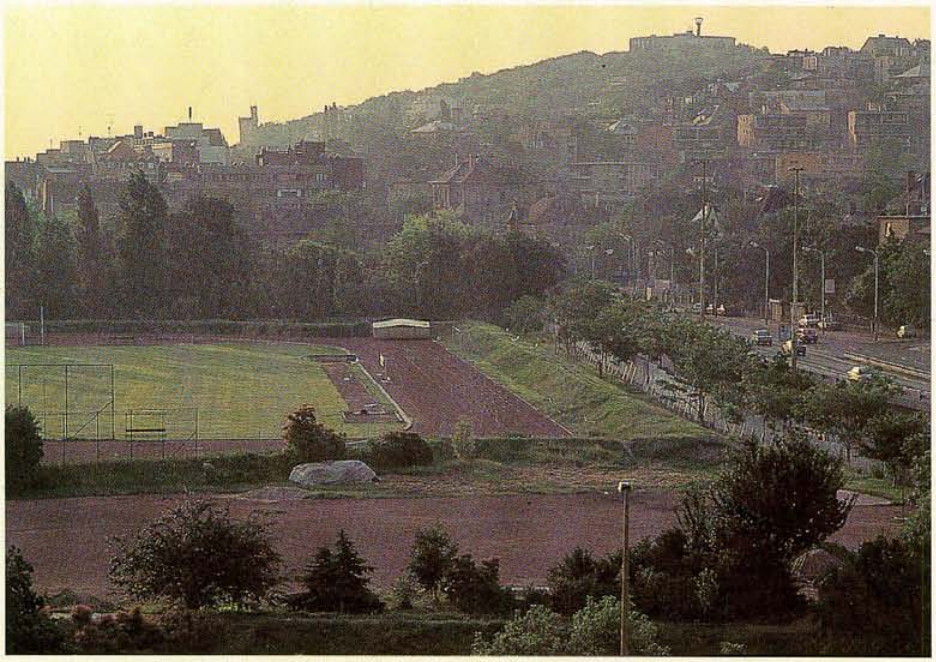


삽화 래리 레버그



“앨마와 앰율레크”, 게리 엘 캡 작

무고하게 투옥된 앨마와 앰율레크는 박해자들에 의해 옷을 빼앗기고 결박되었으며 심한 욕설을 들었다. “여러 날 동안 이처럼 고난을 당한 뒤”(앨 14 : 23) 주님은 이로부터 벗어나게 해 달라는 앨마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그들을 결박했던 것이 풀리고, “땅이 무섭게 흔들려 감옥의 벽이 두 쪽으로 갈라져 떨어졌으니, 앨마와 앰율레크를 매질했던 대판사를 비롯한 자들이 무너지는 벽에 치여 죽었으며, 앨마와 앰율레크는 다치지 않고… ”(앨 14 : 24~29 참조.)



"대관장단의 승인을 받아 저는 부다페스트의 켈러트(Gellért) 산 위에서 헝가리를 헌납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보고하고 있다. 넬슨 장로는 특집 기사에서 최근에 유럽 중부 및 동부권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교회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럽 무대에 올려진 드라마", 8쪽 참조